ISSN 1223-9683

博 物 館 紀 要

25

2010. 05.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목 차

❖ 論　　文

高麗와 朝鮮時代의 塔婆 ····· 鄭永鎬 ····· 5

高麗時代 石塔의 特徵 ····· 陳政煥 ····· 19

朝鮮時代의 塔婆 ····· 嚴基杓 ····· 51

高麗時代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舍利具의 銅鏡 埋納의 樣相 ··· 李松蘭 ····· 79

高麗와 朝鮮時代의 塔婆

鄭 永 鎬*

Ⅰ. 서 론
Ⅱ. 고려시대 석탑
Ⅲ. 조선시대 석탑

Ⅰ. 서 론

사찰의 건립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를 모신 塔婆를 건조하고 부처님을 봉안한 법당을 세우며 불법을 포교 전수하는 스님들이 기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찰이던 마당 한가운데 탑이 서있으며 그 안쪽으로 법당이 배치되어 있고 주변에 승방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塔이란 사찰의 수효만큼 세워져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는 이러한 기본적인 가람배치를 지키지 않고 법당과 승방, 요사체 만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와 같은 원칙에서 본다면 사찰을 많이 창건하였을 때 탑도 많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실정은 통일신라시대의 사찰 창건은 많으나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

왕의 사찰 중창과 보수는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찰의 건립은 신라시대를 따르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는 오히려 배불정책으로 인하여 사찰이 훼철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탑의 건립은 실로 미미한 상태였다.

탑은 반드시 불교와 관계되고 사찰의 창건과 정비례하므로 국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불교 옹호정책 하에서는 사찰의 창건이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의 造塔활동을 보여주며 탑의 보수사실을 여러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배불숭유 정책이 국시였으므로 사찰의 창건은 다소 불교를 보호한 군주 하에서 몇 곳의 창건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방에 따라 불교 옹호지역에서는 사찰의 건물 수리와 함께 탑의 보수도 있었으나 그 숫자는 셀 수 있을 정도였다.

Ⅱ. 고려시대 석탑

고려시대를 살펴보면 이때에도 탑은 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예배 대상이었으므로 그 수에서나 조형미에 있어서 당시 불교적인 조형 미술의 중추를 이루고 있었다. 태조 왕건의 '훈요10조'에도 반영되고 있듯이 새로이 전개되는 도참사상의 영향은 전국적인 형태로 불교의 흥왕함을 나타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시대 탑파 건립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신라식 일반형의 유행 : 신라시대의 탑파양식이 그대로 고려시대에 전승되어 정사각형 평면에 각 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이 중적되는 양식으로 예천개심사지5층석탑(보물 제53호, 제8대 현종원년, 1010년), 정도사지5층석탑(보물 제357호, 제8대 현종 22년, 1031년), 남계원7층석탑(국보 제100호), 광주춘궁리3층석탑(보물 제13호), 안성죽산리5층석탑(보물 제435호), 금산사5층석탑(보물 제25호), 천안천흥사지5층석탑(보물 제354호), 청양서정리9층석탑(보물 제18호)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사진 1)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

(사진 2) 정도사지 5층석탑

2. 지방적인 특색과 특수형의 유행 : 고려시대의 탑은 지방적인 특색을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대에 볼 수 없었던 각양각색의 새로운 특수한 異型 형식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① 신라의 옛 땅에서는 신라시대 석탑의 계통을 충실하게 계승한데 대하여 백제의 옛 땅인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백제시대 석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예가 많다. 그리하여 백제탑의 양식을 가미한 고려 석탑이 곳곳에 세워졌던 것이니, 예컨대 충청남도 지방에서는 부여무량사5층석탑(보물 제185호), 부여장하리3층석탑(보물 제184호), 서천비인5층석탑(보물 제224호) 등을 들 수 있다.

전라북도 지방에서는 익산왕궁리5층석탑(국보 제289호), 정읍은선리3층석탑(보물 제167호), 김제귀신사3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사진 3) 부여 장하리 3층석탑

(사진 4) 서천 비인 5층석탑

(사진 5) 익산 왕궁리 5층석탑

(사진 6) 정읍 은선리 3층석탑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담양읍내리5층석탑(보물 제506호), 진도금골산5층석탑(보물 제529호), 곡성가곡리5층석탑(보물 제1322호) 등을 들 수 있다.

(사진 7) 진도 금골산 5층석탑

(사진 8) 곡성 가곡리 5층석탑

② 또 하나의 특징은 각양각색의 새로운 특수형식의 석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평면 정사각형 중층의 일반형 석탑의 형식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특수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제천사자빈신사지 4사자석탑(보물 제94호, 제8대 현종 31년, 1022년), 홍천괘석리4사자3층석탑(보물 제540호) 등을 들 수 있다.

(사진 9)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석탑

(사진 10) 홍천괘석리 사사자 3층석탑

③ 특수한 새로운 양식으로 전체적인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예로 평면 정사각형의 범주를 벗어나 6각형, 8각형 또는 다층으로 변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 예로 월정사8각9층석탑(국보 제48호), 금산사6각다층석탑(보물 제27호), 영명사8각5층석탑(평양시 상경리 금수산 소재), 광법사8각5층석탑(대동군 임원면 광법사 경내), 보현사8각13층석탑(연변군 묘향산 보현사 경내), 율리사지8각5층석탑(현재 일본 동경 오꾸라 미술관 이건), 원광사지6각다층석탑(대동군 고평면 원광사지) 등을 들 수 있다.

(사진 11) 월정사 8각 9층석탑

(사진 12) 금산사 6각 다층석탑

④ 한편 조형적인 면에서 전대의 평면 사각형과는 전혀 다른 圓形의 평면을 이루는 탑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 예컨대 운주사원형다층석탑(보물 제798호), 운주사원구형석탑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사진 13)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

(사진 14) 운주사 원구형 석탑

⑤ 또 하나 이 시대에 유행된 특이한 석탑으로 청석탑이 건조되었다. 신라 하대에 해인사원당암다층석탑(보물 제518호)의 선례가 있기는 하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더욱 유행되었다. 예컨대 영월군수주면무릉리다층석탑, 대구동화사염불암다층석탑, 창녕군영산면법화암다층석탑, 의성군다인면대곡사청석탑, 아산군염치면신심사다층석탑, 법주사여적암다층석탑, 원주치악산보문사청석탑, 충주시직동창룡사다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사진 15) 의성 대곡사 청석탑

(사진 16) 원주 치악산 보문사 청석탑

⑥ 특징적인 석탑으로 전체적인 변형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인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이를테면 석탑의 탑신부에 연화석 등으로 괴임대를 마련하거나 그 자체가 연화대석으로 이루어지고 또는 각층에 괴임석을 끼워 마치 공예탑과도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예천개심사지5층석탑(보물 제53호), 춘천7층석탑(보물 제77호), 구례논곡리3층석탑(보물 제509호), 횡성압곡리3층석탑, 개성흥국사지석탑, 서울흥제동5층석탑(보물 제166호), 강릉신복사지3층석탑(보물 제87호), 묘향산보현사9층석탑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사진 17) 구례 논곡리 3층석탑

(사진 18) 강릉 신복사지 3층석탑

⑦ 이 밖에 새로운 착상으로 부분적인 변형의 예를 보이고 있으니 정읍천곡사지7층석탑(보물 제309호)을 들 수 있고, 경천사10층석탑(국보 제86호, 제29대 충목왕 4년, 1348년)은 기발한 창의성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대리석탑을 건조하기에 이르러 고려시대의 석탑이 신라 이래의 규범을 벗어나 특징적인 면을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게 한다.

(사진 19) 정읍 천곡사지 7층석탑

(사진 20) 경천사 10층석탑

Ⅲ. 조선시대 석탑

조선시대의 석탑은 배불숭유 정책에서 자연히 크게 발달할 수 없었음을 직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前代의 석탑 양식을 모방한데서 造塔 활동이 다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조선 전기에 있어서 몇 기의 건조 석탑을 볼 수 있으니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인 석탑에 있어서 양양낙산사7층석탑(보물 제499호, 제7대 세조14년, 1468년), 신륵사다층석탑(보물 제225호), 벽송사3층석탑(보물 제474호), 산청대원사다층석탑(보물 제1112호), 가평현등사3층석탑, 의정부시회룡사5층석탑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사진 21) 신륵사 다층석탑

(사진 22)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② 한편 특징적인 석탑으로는 원각사지10층석탑 (국보 제2호), 남양주시수종사8각5층석탑, 남양주시묘적사8각다층석탑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사진 23) 남양주 수종사 8각 5층석탑

(사진 24) 남양주 묘적사 8각 다층석탑

2. 조선 후기의 조탑 활동은 더더욱 미미하여 현재로는 다음의 몇 기를 대표로 들 수 있다. 예컨대 청주보살사5층석탑, 함평용천사3층석탑, 용주사천보루앞5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사진 25) 청주 보살사 5층석탑

(사진 26) 함평 용천사 3층석탑

이상과 같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건립된 탑의 상황들을 살펴보았는데 塔婆란 어디까지나 불교 그 자체가 조형미술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려시대는 전국적이고도 국민적인 불교의 확산에 따르는 불교미술이어서 석탑의 다양성과 다채로움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는 배불이라는 큰 어려움에서 불교적인 조형물의 조성은 그리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산간벽촌에서 민간 신앙으로서의 불교, 개인을 중심한 종교로 그 범위는 협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 조선시대에 이르러 토속신앙과 불교가 어우러져 사찰 경내에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造塔활동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건탑 佛事는 자연히 쇠퇴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高麗時代 石塔의 特徵

陳 政 煥*

Ⅰ. 머리말
Ⅱ. 在銘 高麗 石塔으로 본 建塔의 樣相
Ⅲ. 高麗 石塔의 多樣한 樣式的 特徵
Ⅳ. 高麗 石塔의 美術史的 意義와 研究 課題
Ⅴ. 맺음말

Ⅰ. 머리말

石塔은 石造塔婆의 줄인 말인데, 塔婆는 본래 범어의 스투파Stupa에서 나온 말로, 부처님의 유골, 즉 진신사리를 봉안한 묘를 일컫는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들어온 뒤 얼마간은 목탑이 주로 만들어졌으나, 7세기부터는 석탑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석탑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彌勒寺址 石塔은 목탑 주재를 충실히 돌로 재현한 것이다. 이렇듯 백제지역에서 목탑을 번안한 석탑을 조성하였다고 한다면, 신라지역에서는 진흙을 구워 만든 벽돌 대신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석탑을 쌓았다. 고구려, 백제를 아우른 신라는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여 세련되고 정제된

* 國立慶州博物館 學藝硏究士

문화를 꽃피웠는데, 석탑 조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 석탑은 感恩寺址 東西三層石塔이나 佛國寺 三層石塔과 같이 두 단으로 된 높은 기단, 삼층의 탑신과 5단의 높은 옥개받침이 특징인 옥개석으로 이루어진 탑신부, 상륜부로 이루어진 정형화된 석탑을 탄생시켰다.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통일신라 석탑은 대부분 이러한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지역에 따라, 혹은 탑을 만든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탑이 조성되었다.[1] 이는 명실상부 불교국가였던 고려의 중앙정부 차원의 불사와도 연관이 있지만, 後三國期를 거치면서 문화적으로 각성한 지방 호족 혹은 민중이 탑의 조성주체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석탑의 명문이나 조성기가 남아 있는 탑을 중심으로 탑의 조성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고려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석탑 전개 상 고려 석탑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 그리고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在銘 高麗 石塔으로 본 建塔의 樣相

고려시대 석탑에 명문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명문이 있는 경우, 그 안에는 조성 시기와 발원 주체 등을 알려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장에서는 석탑의 명문을 검토하여 당시 건탑의 양상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

1) 鄭永鎬, 「高麗 石塔의 樣式上의 特性」, 『東洋學』, 6, 1976, pp.261-270.
鄭永鎬, 「高麗時代石塔의 特性에 관한 硏究」, 『論文集』 11, 檀國大學校, pp.89-120.
秦弘燮, 『韓國의 石造美術』, 文藝出版社, 1995, pp.193-275.
정영호, 『한국의 석조미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pp.88-131.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pp.388-484.

하겠다.

탑 표면에 명문이 남아 있는 경우는 충남 서천 芝峴里 三層石塔,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개성 흥국사 석탑, 고흥 상림리 삼층석탑, 제천 사자빈신사지 석탑, 칠곡 정두사 오층석탑, 영변 보현사 석탑, 해주 신광사석탑, 개풍 경천사석탑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개성, 해주, 영변의 석탑은 현재 북한지역에 남아 있어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탑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지현리 삼층석탑(사진 1)의 명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명문은 1층 탑신에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淳化二年歲次辛卯二月 日」 爲國 發願造塔記」 時戶長 見鄕長 見縣長」
> 信元長 潤別長 昕久長」 (下略)
> [芝峴里 三層石塔 銘文][2)]

순화 2년은 991년인데 호장, 향장, 현장 등이 발원하여 조성한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이 탑이 조성된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백제계 석탑인 비인 오층석탑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신라계 석탑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무래도 지역 내 주도층에 의해 조탑이 이루어지면서 당시 개경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신라계 석탑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개심사지 오층석탑(사진 2)이다. 개심사지 오층석탑에는 상층기단 갑석과 상층기단 중석 동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 上元甲子四十七統和二十七庚戌年二月一日正骨開心寺」
> 到石析三月三日光軍弍六隊車十八牛一千以十間入矣僧」
> 俗娘合一萬人了入弥肋香徒上秤神廉長長司正順行典福宣金由」
> 工達孝順位剛香德貞」
> 品等卅六人椎香徒秩京成仙郎(光叶金叶)阿志大舍香式金哀位奉楊(能廉寸等)」
> (隊正邦祐)其豆昕京位剛儡平(矣典)次衣等」

---

2) 黃壽永, 「高麗石塔의 硏究－在銘作品을 中心으로－」, 『考古美術』 175・176, 한국미술사학회, 1987, p.22.

五十人」
(상층기단 갑석)

棟梁戶長陪戎校尉林長崔祐母主副棟梁▨▨邦祐」
「卌弘爲身心上報之佛恩爲國正功德普及於一切」
辛亥四月八日立」
(상층기단 면석 동면)
[開心寺址 五層石塔 銘文][3]

이 탑의 명문을 통해 조탑 기간을 유추해볼 수 있다. 경술년 2월 1일부터 탑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신해년 4월 8일 탑을 완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꼬박 14개월이 걸린 것이다. 특히 승려, 속인, 선랑 등 1만 명의 노동력과 수레 18대, 소 1,000마리와 光軍의 노동력까지도 탑 조성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명문은 탑 조성 주체로 彌勒香徒와 椎香徒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탑 건립을 위해 조성된 집단으로 유추되며, 당시 여기에는 광군의 지휘자인 대정 등을 비롯한 향리도 참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탑과 달리 「淨兜寺址五層石塔形止記」에는 향도의 존재는 등장하지 않고 석탑의 조성 주체가 본군의 軍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郡內老少男女百姓等'의 발원으로 탑이 조성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정도사지 석탑 역시 탑 건립을 위한 향도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의 두 예로 살펴볼 때 고려시대에는 『고려사』 등에 언급되어 있는 국가 주도 사찰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의 향도들에 의해서 많은 조탑 불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시대 다양한 양식의 석탑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두 탑은 모두 신라계 석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탑의 발원 주체는 신라 문화를 동경하고 있던 집단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이 석탑 조성의 발원자인 예는 고흥 상림리 삼층석탑(사진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천희 5년인 1021년에 동량 寶任을 비롯한 士庶가 마음을 같이하

3) 許興植 編,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篇, 亞細亞文化社, 1984.

여 발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天禧五年辛」酉十一月▨▨」▨人得名僧祿▨」棟梁▨慕寶任」士庶洪▨同心」同願爲聖壽」
天長國泰民安」法輪常轉▨▨」▨▨石塔▨▨」付棟樑知暹」
[高興 上林里 三層石塔 銘文][4]

다음으로 살펴볼 탑은 개성 흥국사 탑이다. 현재 개성박물관에 있는 이 석탑은 기단 중석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菩薩戒弟子平章事姜邯瓚」奉爲」邦家永泰遐邇常安敬造」此塔永充」供養」
時天禧五年五月 日也」
[興國寺 石塔 銘文][5]

명문에 따르면 흥국사 석탑은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이 발원하여 1021년 5월 5일에 완성한 석탑임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개인의 원탑 건립 역시 신라 하대에 이어 고려시대에서도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022년 세워진 사자빈신사 사사자석탑(사진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탑 역시 1인의 발원으로 세운 원탑일 것으로 추정된다.

佛弟子高麗國中州月」岳師子頻迅寺棟梁」奉爲 代代」
聖王恒居萬歲天下大」平法輪常傳此界他方」永消怨敵後愚生婆娑」旣知花藏迷生卽悟正」
覺 敬造九層」石塔一坐永充供養」大平二年四月日謹記」
[獅子頻迅寺址 四獅子石塔 銘文][6]

이러한 경향은 고려 후기까지도 이어지는데, 경천사 십층석탑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4) 黃壽永 編,『韓國金石遺文』, 黃壽永全集 4, 일지사, 1998.
5) 주 3)과 동일.
6) 주 3)과 동일.

있다. 경천사 십층석탑은 친원세력이었던 강융과 고용봉이 시주하여 만든 탑으로, 친원세력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다.

大華嚴敬天祝延皇帝陛下萬歲皇后皇▨▨」
秋文虎協心奉▨▨調雨順國泰民安佛日增輝」
法輪常輪▨▨現獲福壽當生▨▨覺岸至正八」
年戊子三月 日大施主重大匡晋寧府院君姜」
融大施主院使高龍鳳大化主省空施主法山人」
六怡▨▨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敬天寺 十層石塔 銘文][7]

이와 더불어 佛力으로 국가를 지키고자 한 고려인들의 의지를 석탑 명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도사지 오층석탑(사진 5) 명문에서 볼 수 있다.

特爲」家國恒安兵戈永」息百穀豊登敬造」此塔永充」供養」
太平十一(▨未)正月 日」 願」
[淨兜寺址 五層石塔 銘文][8]

명문 내용 가운데 '전쟁이 영원히 멈추길(兵戈永息)'바라는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흥국사 석탑의 '나라가 오래도록 편안하고 저들이 멀어져 항상 편하기(邦家永泰遐邇常安)'를 빈 내용, '영원한 원수 적들이 없어지기(永消怨)'를 빈 사자빈신사지 석탑의 내용, 그리고 개심사지 오층석탑에서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僞國正)'는 내용이 있다. 이 탑들은 모두 현종 재위 기간인 1009년에서 1031년 사이에 조성된 탑들이다. 현종 재위 시 거란의 침입이 잦았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표현은 불력으로 거란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탑을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9]

---

7) 주 3)과 동일.
8) 주 3)과 동일.
9) 강병희, 「고려 전기 사회변동과 불탑 : 11~12세기 불탑의 북방적 영향」, 『美術史學』 23, 2009, pp.284-285.

Ⅲ. 高麗 石塔의 多樣한 樣式的 特徵

고려시대에는 경상도지역을 비롯하여 신라인들이 대거 이주한 개경을 중심으로, 신라시대 탑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2층 기단에 3층 탑신이 있는 정형화된 탑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 부분적인 변형을 준 석탑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석탑은 대체로 받침돌은 두께가 얇아지고 모각 없이 둥글어지며, 탑신은 폭에 비해 높이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지붕돌은 두꺼워지고 처마가 반전되어 전체적으로는 고준하지만 안정감을 준다. 이와 함께 지붕돌 아래에 정방형 혹은 연화가 새겨진 받침돌을 끼워 넣거나, 기단 등에는 십이지신상·팔부중상 등을 조각하여 마치 공예탑 같은 느낌을 자아내기도 한다.

이렇게 신라시대 정형화된 탑을 계승하고 있는 고려시대 석탑은 후기로 갈수록 받침돌이 더욱 얇아지고, 구조가 더욱 간단해지며 기단부가 점점 높아지고 각 층의 체감율이 줄어든다. 이로써 외관상 더욱 고준해지면서 전반적으로는 장중하고 아담한 고려 석탑의 맛이 줄어든다.

옛 백제지역에서는 미륵사지 석탑이나 정림사지 석탑과 유사한 양식의 석탑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전체적인 조형미나 구성의 방법 등에서는 옛 백제탑을 모방하고 있지만 세부 형식은 간략화되고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국가가 최고의 장인을 동원하여 석탑을 건립하였던 백제시대와 달리 고려 왕실로부터 약간은 소외된 이 지역의 유력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에는 다각다층 탑, 사사자 석탑, 외래양식의 탑, 그리고 화강암 대신 다른 재료로 만든 탑 등 매우 다양한 석탑이 조성되었다.

이 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신라 석탑, 백제 석탑, 혹은 고구려 석탑을 계승한 고려 석탑의 각기 다른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다양한 특수형 석탑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라 석탑의 계승과 고려 석탑의 발전

고려시대에는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확립된 신라 석탑의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소위 '신라계 석탑'으로 부를 수 있는 一群의 석탑이 있다. 지금까지 신라계 석탑은 신라의 영토인 경상도지역과 개경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일대에서 주로 조성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고려시대 신라 석탑의 영향은 전국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백제계 석탑이 조성된 충청・전라지역에서도 신라 석탑을 계승한 석탑이 조성된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상도와 경기도 일대에 이 계열의 석탑이 집중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라의 舊土인 경상도 일대의 신라계 석탑은 차치하고, 경기도에서 신라계 석탑이 집중된 이유는 신라 패망 후 개경으로 이주하였던 구신라 귀족들이 광종 이후 본격적으로 중용되면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 석탑으로는 개심사지 오층석탑(사진 2), 광주 춘궁리 삼층석탑(사진 6),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사진 7), 이천 안흥사 오층석탑(사진 8) 등을 들 수 있는데, 중층 기단, 정연한 옥개받침, 완만한 낙수면, 예리한 전각의 반전 등은 신라 석탑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아울러 기단부는 여러 장의 석재를 사용하지만, 탑신은 한 장의 돌로 조립하는 신라 석탑의 造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지대석 위에 4장의 판석을 결구하여 하층기단을 구성하였는데, 각 면에 안상 3개를 조각하고 안상 안에는 12지신상을 각각 조각하였다. 두 장의 판석으로 하층기단 갑석을 만들었는데, 그 윗면에는 호각형의 2단 받침을 조출하였다. 상층기단은 하층기단과 마찬가지로 4장의 판석으로 조립하였는데, 각 면에는 우주와 1주의 탱주를 모각하였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팔부장상을 조각하였다. 상층기단 갑석은 1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앙련 별석받침이 있다. 탑신과 옥개석은 각각 1장의 돌로 되어 있으며,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특히 초층탑신 남면에 문비를 새기고 자물쇠와 금강역사상을 조각하였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짧고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전각에서 반전을 보인다. 상륜부에는 노반과 복발이 남아 있다.

광주 춘궁리 삼층석탑은 하층기단과 상층기단 갑석에서 개심사지 오층석탑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수평을 이룬 개심사지 오층석탑에 비해 경사가 뚜렷하여 마치 옥개석을 보는 듯 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갑석은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에서도 볼 수 있어, 고려시대 신라계 석탑이 단순히 신라 석탑의 재현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변형하여 고려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신라 석탑의 변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고려 양식 석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식의 석탑 역시 전국에 걸쳐 확인된다. 이 고려 석탑은 신라계 석탑과 기단, 옥개석에서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기단은 중층기단인 것도 있지만 단층기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길이가 짧고 급한 경사를 보이지만 옥개받침이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 옥개석이 탑신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전각에서 반전된다. 또한 남계원 칠층석탑 등 일부 석탑을 제외하고 대부분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인데, 탑의 규모가 작아진 만큼 탑신석과 옥개석, 기존 별석이었던 받침과 탑신석이 한 돌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려 양식 석탑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별석받침을 들 수 있는데, 별석받침이 등장한 통일신라 후기에 초층탑신 정도만 받쳤다고 한다면, 고려 양식 석탑에는 모든 탑신에 삽입되었다.[10)]

이러한 고려 양식 석탑은 몇 가지 계통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2층 기단에 고려 양식 석탑의 탑신과 옥개석의 특징을 보이는 석탑군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남계원 칠층석탑을 들 수 있는데, 남계원 칠층석탑(사진 9)은 경기도 개성시 덕암동 남계원지에 있던 것을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온 것이다. 기단의 비율이 신라계 석탑과 다른데, 하층기단은 높고 상층기단은 낮게 표현되어 거의 높이가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탑신은 1층은 높지만 2층부터는 거의 높이가 같으며, 옥개석 받침이 3단이기는 하지만 매우 낮고, 그 윗면 낙수면의 경사는 짧고 급한 편이다. 남계원 칠층석탑과 유사한 양식의 석탑은 현화사 칠층석탑, 영통사 오층석탑 등 고려의 왕도인 개성인근 뿐만 아니라, 정산 서정리 구층석탑(사진 10), 마곡사 오층석탑(사진 11), 천흥사 오층석탑(사진 12), 정도사지 오층석탑(사진 5) 등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또 다른 계

10) 강병희는 별석받침을 건축물의 平坐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11세기~12세기 요와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보아 遼代 건축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강병희, 앞의 논문, 2009, pp.289-317).

통은 단층 기단이면서 고려 석탑의 전형적인 옥개석을 갖춘 경우로, 안국사지 석탑(사진 13), 광주 서오층석탑(사진 14), 소대리 오층석탑 등이 있다. 이 두 계통에서도 옥개석이 평박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처마의 길이가 짧아서 상대석으로 옥개석이 두꺼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고려 양식 석탑의 대부분이 전자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괴산 미륵리 오층석탑(사진 15)과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사진 16) 등의 탑은 후자, 즉 처마의 길이가 짧고 옥개받침의 높이가 높아 상대적으로 옥개석이 두꺼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의 것들과 또 다른 계통도 존재하는데, 바로 신복사지 삼층석탑(사진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복사지 삼층석탑은 지대석 위에 伏蓮이 조각되어 있으며, 하층기단 면석, 갑석, 별석받침, 상층기단 면석, 갑석과 별석받침으로 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이다. 또한 2층 이상에도 탑신받침이 있는데, 받침은 탑신과 하나의 돌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홍제동 오층석탑(사진 18)이 이 탑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록 기단부가 결실되어 알 수 없지만, 탑신과 탑신받침이 1장의 돌로 이루어진 점, 탑신 면석 기둥과 기둥 사이에 수직선을 둔 장식적인 표현으로 보아 신복사와 같은 계열의 석탑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남원 만복사지 오층석탑(사진 19), 개성 불일사 오층석탑에서도 별석받침 석탑이 확인된다.

2. 귀소의식의 발현과 고구려계 · 백제계 석탑의 조성

앞서 살펴본 신라계 석탑과 고려 양식 석탑의 경우, 그 분포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석탑도 존재한다. 바로 팔각형 평면을 보이는 석탑과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석탑을 연상시키는 탑이 그것이다.

팔각형 평면의 석탑은 도피안사 삼층석탑의 기단부나, 석굴암 삼층석탑의 상층기단 정도에서 확인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팔각을 띠는 경우는 없다. 그 원류는 아마도 고구려 목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청암리사지 목탑, 상오리사지 목탑, 정릉사지 목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결같이 팔각형의 평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다층탑의 조성이 다각다층탑이 유행하였던 요나라와 송나라의 영향일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다각다층탑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에 대한 그 지역민의 귀소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팔각형 평면을 지닌 석탑은 평양 영명사 팔각오층석탑, 평양 인근 대동지역의 광법사 팔각오층석탑, 율리사지 팔각오층석탑, 영변 보현사 팔각십삼층석탑과 함께 강원도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사진 20)이 있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 일대에서 팔각형 평면의 석탑이 등장한 것은 후고구려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는 그 국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 계승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하였기 때문에 당시 후고구려의 영역이던 강원도 평창지역에 고구려에 대한 귀소의식이 팽배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소위 백제계 석탑[11]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은 첫째, 대체로 매우 낮은 단층기단을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던 고려 양식 석탑에서도 단층기단이 보이기는 하지만 백제계 석탑의 단층기단은 그보다 훨씬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미륵사지 석탑이나 정림사지 석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신라 하대로 갈수록 석탑의 규모가 작아지고 부재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과 달리 부재의 수가 늘어난다. 이는 목탑을 번안하여 만든 백제시대 석탑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옥개석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옥개석의 합각선에 우동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고 옥개받침도 3단 혹은 1단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옥개받침과 처마의 간격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백제계 석탑의 시작을 왕궁리 오층석탑(사진 21)에 두었으며 그 조성배경을 후백제 견훤의 백제 계승의식과 연결시켜왔다. 그러나 왕궁리 오층석탑은 옥개석의 표현에서는 백제계 석탑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기는 하지만 가구식의 높은 단층기단이 견훤의 출신지인 문경과 상주일대의 석탑과 같은 형식이어서 완전히 백제계 석탑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후백제의 불

11) 李殷昌, 「百濟樣式系 石塔에 대하여」, 『佛敎學報』 3・4, 1966.
鄭善宗, 「百濟系石塔에 관한 一考察－建立 背景과 時期를 중심으로－」, 『史學志』 20, 1986.
千得琰, 「全南地方의 百濟系石塔」, 『全南文化財』 3, 1991.
陳政煥, 「全北地域 百濟樣式 石塔에 對한 一考察」, 『國立公州博物館紀要』 3, 2003.
朴慶植, 「百濟系石塔의 建立 背景에 關한 考察」, 『文化史學』 24, 2005.

교미술이 대부분 통일신라 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봉암사 오층석탑, 화엄사 동오층석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옛 궁성지인 왕궁리 유적에 세운 기념비적 조형물인 왕궁리 오층석탑의 조성으로 인해 비로소 지역 내 백제에 대한 귀소의식이 팽배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석탑들은 충청 일부 지역과 전라지역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백제 석탑을 모방하려 한 석탑으로는 김제 귀신사 삼층석탑(사진 22), 군산 탑동 삼층석탑(사진 23),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사진 24),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사진 25), 비인 오층석탑(사진 26)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이거나 지방 거점 도시일 것으로 판단된다. 순수 백제계 석탑에 더해 신라 석탑과 고려 석탑의 양식이 절충된 담양 읍내리 오층석탑(사진 27),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사진 28), 금골산 오층석탑(사진 29), 월남사지 삼층석탑(사진 30), 무량사 오층석탑(사진 31), 보원사지 오층석탑(사진 32)과 같은 절충식 석탑이 전남지역과 충청 북부지역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라 석탑과 백제 석탑의 요소가 절충된 석탑도 조성되었는데, 역시 지리적으로는 충남과 전라도에 한정됨을 알 수 있다.

백제계 석탑의 특징은 비인 오층석탑과 귀신사 삼층석탑의 예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낮은 기단은 우주와 면석을 각기 다른 돌로 결구시켰으며, 그 너비가 1층 탑신과 거의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초층탑신 역시 우주와 면석을 별도로 조성하였는데, 우주 위에 목조건축물의 평방에 해당하는 부재를 올려놓았으며, 이는 2층 이상의 탑신에서도 확인된다. 옥개석의 받침은 사선형 1단을 두었다. 옥개석은 평박하고 경사가 거의 없다가 전각에서 반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옥개석 위에는 별석으로 높은 받침돌을 두었다. 이러한 외형적 특징에서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부재가 단순화되고 1층 탑신이 다른 탑신에 비해 높아 어색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은선리 삼층석탑이 이 탑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단식 기단을 보이기는 하지만 귀신사 삼층석탑이나 장하리 삼층석탑도 이 계통, 즉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모방한 백제계 석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와 달리 군산 탑동 삼층석탑은 미륵사지 석탑을 계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리적으로도 미륵사지 석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백제계 석탑이다. 이 탑은 앞서

언급한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계승한 석탑보다 낮은 기단을 보이며, 탑신에는 상·하인방과 창방, 평방을 별도의 석재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목탑을 재현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탑으로 미륵사지 석탑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백제 고토, 좀더 엄밀히 말하면 후백제의 영역 내 백제계 석탑의 조성 배경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후백제 견훤에 의해 고양되기 시작한 백제에 대한 귀소의식이 문화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석탑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불상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또 하나 그 조성시기를 종래 고려의 지방제도가 정비된 현종대 이전으로 파악하였으나,[12] 13세기에도 백제의 부흥을 기치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13] 이로 미루어 볼 때, 비록 견훤의 후백제 건국이나 原栗의 亂 등 정치적 회귀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문화적 귀소의식 내지 자긍심은 충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고려 전시기에 걸쳐 백제계 석탑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신라 특수형 석탑의 계승과 변화

신라 사사자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석탑도 꾸준히 고려시대에 조성되는데, 그 예는 사자빈신사지 석탑(사진 4), 홍천 괘석리 사사자석탑(사진 33), 함안 주리사지 사사자석탑, 금강산 금장암 사사자삼층석탑 등이 있다.

사자빈신사지 석탑은 2층기단과 방형의 탑신으로 이루어진 석탑인데, 마치 대좌를 연상시키는 하층기단의 하대석에는 고려시대 석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상을 조각하였으며, 중대석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우주를 모각하였다. 사사자가 상층기단을 대신하였으며, 그 중앙에는 좌상의 두건을 쓰고 지권인을 결한 여래좌상을 배치하였다. 이렇게 상층기단 부분에 네 마리의 사자를 배치한 것은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을 모방한 것

12) 鄭善宗,「백제계석탑에 관한 일고찰－건립배경과 시기를 중심으로－」,『사학지』, 1986, p.248.
13)『高麗史』世家 卷 23, 高宗 24年條.
『高麗史』列傳 卷 16, 金慶孫條.

으로 여겨지며, 홍천 괘석리 사사자삼층석탑이나 금강산 금장암 사사자삼층석탑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옥개받침의 두께가 얇아 전체적으로 평박하며 전각에서 반전을 보이는 고려 석탑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전탑과 모전석탑도 꾸준히 조성되었는데, 봉감 오층모전석탑(사진34), 제천 장락리 칠층모전석탑, 정암사 수마노탑,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여주 신륵사 전탑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와 더불어 통일신라시대의 도피안사 삼층석탑(사진 35)과 같은 소위 불상 대좌를 연상시키는 기단부가 특징인 석탑 역시 고려시대에도 조성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익산 사자암 석탑(사진 36)이다. 도피안사 석탑 기단부가 모두 팔각인 것에 비해 사자암 석탑의 기단부는 팔각과 방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상대서과 하대석이 방형으로 변모한 것은 고려시대 확산된 방형 대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 석탑 가운데 기단부가 팔각대좌 형태를 띠는 것으로는 평양 영명사 팔각구층석탑이 있고, 방형대좌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는 개성 관음사 칠층석탑, 개성 흥국사 석탑 등이 있다.

4. 새로운 석탑의 창안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볼 수 없던 평면이나, 재질의 석탑이 등장하게 된다.

우선 평면이 전혀 새로운 석탑으로는 화순 운주사 석탑군 가운데 원형석탑(사진 37)과 탑신을 둥글게 한 소위 鉢形석탑(사진 38)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석굴암 삼층석탑과 같은 경우에 기단부의 일부를 둥글게 한 경우가 있지만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처럼 기단부와 탑신, 옥개석 모두를 원형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운주사 난탑의 경우, 방형기단 위에 옥개석 없이 체감을 보이는 원형석재를 중첩시킨 매우 특이한 형태의 석탑이다. 그러나 이 곳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 탑의 조성주체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조성주체에 대해서는 이미 나주지역에서 문벌로 성장한 여러 가문일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지만,[14] 이들의 조성은 신라계 석탑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이형석탑은 순수 지방민에 의해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이 기존의 석탑과 다른 것으로 寶篋印石塔(사진 39)을 들 수 있다.[15] 동국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협인석탑은 충남 천안시 대평리사지와 그 주변에서 수습된 것인데, 조금씩 다른 부재를 중첩하여 쌓고 맨 위에 소위 馬耳形 귀장식을 세우고 그 안에 복발을 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석탑은 중국 오대 吳越王 錢弘俶이 조성한 8만4천보협인탑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보협인탑은 광종 11년(960) 전홍숙이 天台敎籍을 구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을 때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국대 소장 보협인석탑 각 면에는 여래상, 본생도와 불전도를 조각하였는데, 조각 기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1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탑에서 새로운 평면을 도입한 예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경천사 십층석탑(사진 40)이다. 이 석탑은 고려 忠穆王 4년(1348) 京畿道 開豊郡 光德面 扶蘇山 자락의 경천사에 세웠던 탑이다. 이 탑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면 모든 병이 나았다고 하여 藥皇塔이라고도 불렀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기도 하다. 경천사 십층석탑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리석을 사용하여 만든 탑으로, 기단부는 4면이 튀어나온 亞자형으로 3단을 이루고 있으며, 사자, 서유기 장면, 보살, 나한 등이 조각되어 있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난간과 탑신 그리고 지붕으로 이루어진 탑신부는 목조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탑의 평면은 기단부와 같이 1층부터 3층까지는 4면이 튀어나온 亞자형을 이루었고 그 위의 4층부터 10층까지는 네모난 형태를 보인다. 1층에서 3층까지는 다섯 면을 이용하여 불교의 여러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붕에는 각 장면의 명칭을 알 수 있는 현판이 달려 있다. 1층 동서남북 각각의 면에는 彌陀會, 靈山會, 三世佛會, 龍華會를, 2층에는 多寶佛會, 圓覺會, 華嚴會, 法華會를 새겼고, 3층에는 藥師會, 栴檀瑞像會, 消災會, 楞嚴會를 새겼다. 4층에는 釋迦會, 地藏會, 圓通會, 涅槃會를 새겼는데, 4층의 경우 원통회 현판만 남아 있다. 5층부터 10층까지는 5구 혹은 3구의 불상을 빈틈없이 조각하였다.

특히, 1층 탑신에는 원나라 至正 8년(1348)년 晋寧府院君 姜融과 院使 高龍鳳이 시주

14) 박경식,「和順 雲住寺의 石塔에 관한 考察」,『박물관기요』5, 1989, pp.5-27.
15) 安眞鏞,「寶篋印塔에 관한 硏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0.

하여 탑을 만들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世宗實錄地理志』에는 경천사는 원나라 승상 脫脫의 원찰이고, 강융이 원나라에서 장인을 뽑아 이 탑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16] 이러한 기록을 반영하듯 亞자형 평면인 기단부와 3층까지의 탑신부는 원나라 라마탑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와 함께 탑신 윗면에 몇 층 어느 쪽 부재인지를 밝혀주는 글자와 조각에 실패한 부재를 재활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나라 장인의 지도·감독 아래 정교한 설계도면과 일정 수량의 대리석을 원나라로부터 들여와 이 탑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래적인 요소와 함께 우리나라 특유의 면모도 보인다. 첫째, 4층부터 10층까지의 사각형 평면과 목조 지붕 등은 당시 라마탑에는 없는 형식이며, 둘째, 이 탑에 새겨진 불회상 장면은 이 탑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선 시기의 탑인 보협인탑이나 현화사 터 칠층석탑 등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탑신에 새겨진 불상은 봉림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과 1346년에 만든 장곡사 금동 약사불 좌상 등과 같이 고려 후기 조각 양식을 보인다.

이로 미루어, 이 탑은 비록 원나라 장인이 직접 관여했다고 하나 우리 나름대로 재창조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라마탑 형식에 우리나라 기존 탑 형식이 절충된 전혀 새로운 형식의 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탑의 층수가 3층, 5층, 7층 등과 같이 홀수가 아니라, 10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천사가 화엄종 계통의 사찰이었기 때문으로, 이는 1층 탑신에 새겨진 명문에 "大華嚴敬天寺…"라는 구절에서 그 근거가 확인된다. 즉 『華嚴經』에서는 十을 '화엄의 완성', '완전한 수'로 보기 때문에 의당 화엄종 사찰이었던 경천사에 화엄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10층탑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 亞자형 평면도 十의 변형으로 볼 수 있어, 입면뿐만 아니라 평면까지도 화엄사상에 입각하여 계획된 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천사 십층석탑은 고려시대 건축사와 미술사, 특히 조각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조선 초 건립된 圓覺寺址 十層石塔(사진 41)의 모델이기도 하다. 건축사적으로는 고려 多包 양식 건물 가운데 유일한 것이며, 당시 목조건축의 일면을 알 수 있는

16) 秦弘燮, 『韓國美術資料集成(1)』, 一志社, 1992, p.157.
'…晋寧君姜融募元朝工匠, 造此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또한 미술사적으로 탑신의 모든 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불상은 14세기 조각 양식 연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불화 도상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재료에서도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는데, 바로 청석암과 대리석의 사용이다. 청석암은 재질이 물러 섬세한 조각은 가능하지만 탑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재질이다. 그러나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을 비롯하여 반룡사, 대곡사, 금산사 육각다층석탑(사진 42) 등 총 13기의 청석탑이 존재한다.[17] 기단부는 2~3단 정도의 화강암을 쌓고 그 위에 탑신이 거의 생략되고 옥개가 강조된 청석암재를 다층으로 중첩시켰는데, 육각인 금산사 탑을 제외하고는 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Ⅳ. 高麗 石塔의 美術史的 意義와 硏究 課題

고려시대의 석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을 보수・유지한 것까지 포함하면, 고려인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고려 석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미술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석탑의 다양성은 고려 문화의 역동성과 독창성, 그리고 외래문화 수용의 일면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고려시대 석탑의 미술사적 의의를 우선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해보도록 하겠다.

고려시대 석탑은 첫째, 고려사회가 불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그 수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종 재위 기간, 거란과 전쟁을 치르던 시기에 세워진 석탑은 佛力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석탑 조성에 왕실에서부터 향도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는 것

17) 洪大韓,「高麗時代 靑石製 多層石塔 考察 Ⅰ」,『文化史學』第32號, 韓國文化史學會, 2009, pp. 109-140.

으로도 불교가 전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던 종교였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고려 문화의 다양성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지역마다 그 뿌리를 달리하는 석탑을 조성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옛 신라 지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통일신라시대에 전혀 보이지 않던 석탑들이 옛 백제 땅과 옛 고구려 땅에서 등장하는데, 이는 백제 석탑과 고구려 탑의 재현이라고 할 정도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후삼국기 성장한 이들 지역의 자각이 선행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고구려와 백제의 후신임을 내세웠던 후고구려와 후백제 때가 아니라, 고려시대에 주로 그러한 탑들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이는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집권세력의 출신 배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왕자였던 궁예는 물론이거니와 견훤 역시 상주지역 호족의 아들이면서 신라 중앙 문화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신라 문화에 이미 경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후백제 왕실 발원 불교미술품으로 여겨지는 봉림사지 석조미술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8] 이처럼 뿌리를 달리하는 다양한 석탑은 고려 문화의 개방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려 개국 초기 완전한 중앙집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경을 중심으로 한 석탑들이 대체로 신라 일반형 석탑의 특징을 따르고 있고, 사사자석탑과 같은 특수형 석탑이 꾸준히는 조성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 문화에 신라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라의 수도 서라벌, 구주오소경 출신이 고려 귀족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과 고려가 신라 계승의식을 보였다는 점이 그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19] 그런데 점차 개경 인근 출신들이 점차 고려 문화의 주도층으로 성장하면서 석탑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남계원 칠층석탑을 비롯한 일군의 석탑이다.

넷째, 遼, 宋, 元문화의 영향이 고려 석탑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앞서 고려

---

18) 이와 관련된 논의는 2009년 11월 東岳美術史學會 학술발표에서 필자가 '후백제 불교미술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관련 논문이 2010년 6월 발간되는『東岳美術史學』11號에 수록될 예정이다.

19) 李樹健,「高麗前期 土姓硏究」,『大丘史學』14, 1978.
朴龍雲,「고려전기 慶州의 위상에 대한 고찰」,『慶州史學』제16집, 1997, pp.347-367.
李基白,『韓國史新論』, 一潮閣, 1999, p.157.

시대에 조성된 팔각다층석탑이 고구려에 대한 귀소의식의 발현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고구려의 탑들이 고려시대까지 존재했을까? 치열했던 삼국 통일 전쟁과 그 이후의 방치 등을 고려할 때 온전한 고구려 석탑이 남아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탑을 모본으로 탑신을 조성하였을까? 아마 송과 요에서 유행했던 팔각목탑 혹은 전탑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20] 이와 더불어 원나라 탑 역시 고려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 후기는 원나라의 간섭기로, 수많은 인적·물적 교류가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원나라 탑의 영향으로 조성된 탑의 대표적인 예로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의 라마탑형 상륜부와 경천사 십층석탑을 들 수 있다. 특히 경천사 십층석탑은 재료는 물론, 장인까지도 원나라에서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석탑의 미술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견 한정된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그간 삼국시대, 통일신라 석탑에 비해 고려시대 석탑 연구가 미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의 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함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보협인석탑이나 청석암재 석탑, 경천사 십층석탑과 같은 특수형 석탑에 대한 논문이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백제계 석탑에 집중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는 개개 분야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고려 석탑 연구에 있어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연구 문제점 및 과제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시대 석탑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때문에 석탑의 편년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재명 석탑이나, 탑지 등이 확인된 석탑의 예가 적지 않음에도 지역마다 각기 다른 석탑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편년을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편년 설정에 또 다른 요소인 사찰의 조성 시기와 연관시켜 유추하는 것 역시 완벽하지는 못한데, 사찰의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은 개경을 중심으로 한 사찰 등 일부 사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석탑의 편년을 위해서는 탑지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와 함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 강병희, 앞의 논문, 2009, pp.284-285.

두 번째, 고려 양식 석탑이 언제, 어떻게 등장하였는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려 내 집권세력의 교체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이와 연관시킨 연구를 시도해볼 만 하다. 그리고 탑의 층수가 3층에서 5층, 7층, 9층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고려의 불교 사상 혹은 고려인의 심성과 연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 번째, 그동안 고려시대 백제계 석탑의 시발점으로 여겨졌던 왕궁리 오층석탑의 조성시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최근 백제 석탑으로 보는 견해가 나왔으며, 통일신라 제작, 후백제 제작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탑 내 출토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오히려 탑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앞서 왕궁리 오층석탑을 고려시대 백제계 석탑의 시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야하지 않나 생각된다. 만약 왕궁리 오층석탑이 백제시대에 조성된 석탑이라고 한다면, 고려시대 백제계 석탑 가운데에서 왕궁리 오층석탑을 모본으로 삼는 석탑이 등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순수 백제계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석탑을 모방한 두 가지 계통만 존재한다는 것에서 백제시대에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고려 특수형 석탑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협인석탑이 수도인 개경이 아닌 천안에서 발견된 이유, 운주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석탑이 조성되게 된 배경, 경천사 십층석탑의 장인, 청석암제 석탑의 조성 이유 등을 밝히는 것도 고려시대 석탑의 전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Ⅴ.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고려 석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석탑은 왕실에서부터 지방의 향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발원하여 건립되었고, 신라계 석탑과 고려에서 새

롭게 등장한 고려 양식 석탑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백제계 석탑과 고구려 목탑의 영향을 받은 석탑은 옛 백제지역과 옛 고구려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이들 지역에서 그러한 석탑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후삼국기를 거치면서 신장된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귀소의식이자 문화적 자긍심의 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이전 시기에 조성되었던 사사자석탑이나 모전석탑, 전탑 등이 계승되어 발전하였다. 특히 사사자석탑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려화 된 신라계 석탑이나 고려 양식의 석탑을 바탕으로 하여, 사자의 위치 등은 통일신라 사사자석탑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전탑이나 모전석탑은 외형의 변화가 크지 않고 전통이 유지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고려시대는 그 이전 시기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평면의 석탑과 다양한 재료의 석탑이 만들어진 시기이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앞서 언급하였던 발원 집단이 다양하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진 1) 지현리 삼층석탑
고려 991년 충남문화재자료 128호 2.0m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사진 2) 개심사지 오층석탑
고려 1010년 보물 53호 4.3m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동

(사진 3) 상림리 삼층석탑
고려 1201년 전남문화재자료 184호
전남 고흥군 풍양면 야막리

(사진 4) 사자빈신사지 사사자석탑
고려 1022년 보물 94호 5.6m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사진 5) 정도사지 오층석탑
고려 1031년 보물 357호 4.6m
국립대구박물관

(사진 6) 춘궁리 삼층석탑
고려 보물 13호 3.6m
경기 하남시 서부면 춘궁동

(사진 7) 동화사 삼층석탑
고려 보물 831호 5.2m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사진 8) 안흥사 오층석탑
고려 5.9m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9) 남계원 칠층석탑
고려 국보 100호 9.3m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0) 정산 서정리 구층석탑
고려 보물 18호 6.0m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사진 11) 마곡사 오층석탑
고려 보물 799호 7.5m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사진 12) 천흥사 오층석탑
고려 보물 354호 5.3m
충남 천안시 성거읍 대흥리

(사진 13) 안국사지 석탑
고려 보물 101호 3.0m
충남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

(사진 14) 광주 서오층석탑
고려 보물 109호 7.0m
광주 서구 구동

(사진 15) 괴산 미륵리 오층석탑
고려 보물 95호 6.0m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사진 16)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
고려 보물 511호 5.7m
충북 청원군 가덕면 계산리

(사진 17) 신복사지 삼층석탑
고려 보물 87호 4.5m
강원 강릉시 대곡동

(사진 18) 홍제동 오층석탑
고려 보물 166호 3.5m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9) 만복사지 오층석탑
고려 보물 95호 5.8m
전북 남원시 왕정동

(사진 20)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고려 국보 48호 15.2m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사진 21) 왕궁리 오층석탑
나말여초 국보 289호 8.5m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사진 22) 귀신사 삼층석탑
고려 전북유형문화재 62호 4.5m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사진 23) 탑동 삼층석탑
고려 전북유형문화재 66호 5.5m
전북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사진 24) 은선리 삼층석탑
고려 보물 48호 5.2m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사진 25) 장하리 삼층석탑
고려 보물 184호 4.9m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사진 26) 비인 오층석탑
고려 보물 224호 6.2m
충남 서천군 비인면 월북리

(사진 27) 담양 읍내리 오층석탑
고려 보물 506호 7.0m
전남 담양군 담양읍 읍내리

(사진 28)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고려 보물 1322호 6.2m
전남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사진 29) 금골산 오층석탑
고려 보물 529호 6.5m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사진 30) 월남사지 삼층석탑
고려 보물 298호 7.0m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사진 31) 무량사 오층석탑
고려 보물 185호 7.5m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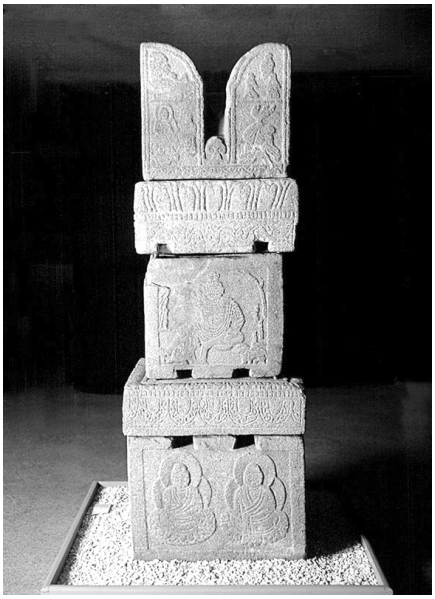
(사진 32) 보원사지 오층석탑
고려 보물 104호 9.0m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사진 33) 홍천 괘석리 사사자석탑
고려 보물 540호 3.5m
강원 홍천군 홍천읍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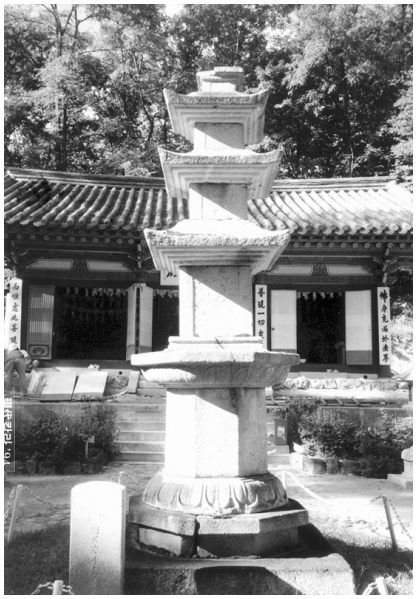
(사진 34) 봉감 오층모전석탑
고려 국보 187호 11.0m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동

(사진 35)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고려 보물 798호 5.6m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사진 36) 운주사 발형석탑
고려 전남유형문화재 282호 2.0m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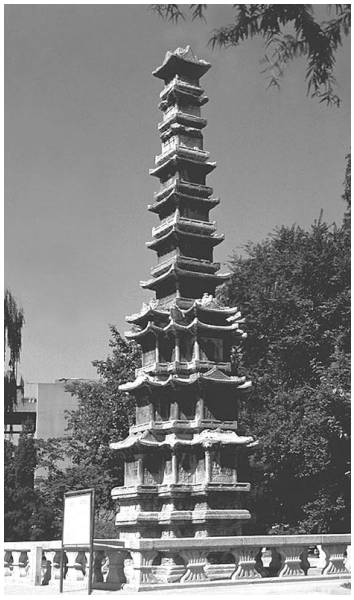
(사진 37) 보협인석탑
고려 국보 209호 1.9m
동국대학교 박물관



(사진 38) 도피안사 삼층석탑
통일신라 9세기 보물 223호 4.1m
강원 철원군 동송읍 도피안사

(사진 39) 사자암 삼층석탑
고려
전북 익산시 금마면 사자암

(사진 40) 경천사 십층석탑
고려 1348년 국보 86호 13.5m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41) 원각사지 십층석탑
조선 국보 2호 12.0m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사진 42) 금산사 육각다층석탑
고려 보물 27호 2.2m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朝鮮時代의 塔婆

嚴 基 杓*

Ⅰ. 서 론
Ⅱ. 조선시대 불교계의 양상
Ⅲ. 조선시대 탑파의 현황과 양식
Ⅳ. 조선시대 탑파의 양식적 특징과 의의
Ⅴ. 결 론

Ⅰ. 서 론

조선의 주요 건국 세력들은 불교에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유교사관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건국 주요 세력들의 대부분은 불교를 배척하고, 사원과 승려들의 부패와 모순 등을 개선하고 혁파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창업하고자 했다. 새왕조의 창업에 따른 새로운 이념과 사상의 등장은 전대에 비하여 불교계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불사는 크게 줄게 되고, 이에 따라 탑파의 건립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위축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는 전체적으로 불교계가 위축되면서 불사가 감소하고, 승려들에

*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대한 예우도 상당히 낮아졌다. 또한 정부의 정책도 기본적으로 불교계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탑파의 건립은 전대에 비하여 상당히 위축되며, 제한적으로 탑파의 중심인 석탑 건립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조선 전기 탑파 건립이 위축되었고 남아있는 수량이 적다는 것은 다른 시기에 비하여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미술이 상당히 위축된 시기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지속적으로 신앙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은 수량이기는 하지만 조선후기까지 탑파의 건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다.

한편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불교계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당시 승려들을 중심으로 불교계가 보여준 護國佛教로서의 대응은 불교의 위상과 승려들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1] 이에 따라 전란 이후 폐허화된 사찰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재한 수많은 사찰들이 佛事를 진행하는 등 불교계가 재도약을 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불교계가 정비되고 승려들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불교계는 17세기 중반경에 접어들면서 고려시대 못지않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조선후기에는 많은 불상들이 조성되고, 금당이 창건되거나 중수되며, 각종 佛書가 찬술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유교에 밀렸던 불교의 역사적·종교적 위상이 점차 높아지면서 유교와 불교가 양립되어 갔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에는 전국의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많은 불사가 성행하게 된다. 그런데 불가의 신앙 활동이나 원활한 법회를 수행하기 위한 불전이나 불상 조성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탑파의 건립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사원에 석탑이 파손되지 않고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석탑을 비롯한 탑파의 건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상과 불사의 중심 조형물의 변화 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신앙과 예배의 중심적인 대상은 탑파였다. 조선시대 건립된 탑파는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비하여 현존하는 탑파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전대와는 다른 양식의 탑파들이 건립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선학들에 의하여 상당 부분 진척되어 왔다.[2] 따라서 필자는 기존의 연

1) 吳京厚,「17世紀 佛國寺古今創記와 湖南의 寺刹事蹟記」,『新羅文化』19집, 2001, p.121.

구 성과를 정리 소개하고, 기존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조선시대 석탑을 소략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시대 불교계의 추이와 양상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탑파에 대한 개설과 양식적 특징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조선시대 불교계의 양상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佛教界는 신라나 고려시대에 비하여 상당히 위축된다. 불교계는 고려말 性理學이 전래된 이후 사회경제적인 모순과 함께 사상적으로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사찰뿐만이 아니라 승려들의 신분이나 예우도 상당 수준 하락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왕실이나 귀족세력들과 밀착되어 있었던 사원들은 서서히 약화되어 간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도 무학대사 자초와 밀착관계에 있었지만 출가 행위와 새로운 사찰의 조영을 제한하는 선에서 불교계를 통제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불교계에 대해서 비교적 온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불교계를 억제하는 조치는 취하지 못하였다.[3] 태조 이성계

---

2) 鄭永鎬,「韓國石塔의 特殊樣式 考察」(下) －高麗와 朝鮮時代 石塔을 中心으로－,『論文集』4, 단국대학교, 1970.
鄭永鎬,「朝鮮時代 石塔의 新例」,『李元淳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교학사, 1986.
鄭永鎬,「山淸 大源寺 八層石塔 硏究 －朝鮮時代 石塔의 新例－」,『龍巖 車文燮博士華甲紀念論叢 朝鮮時代史 硏究』, 1989.
鄭永鎬,「朝鮮時代 石塔의 硏究試論」,『韓國佛教美術史論』, 民族史, 1990.
鄭永鎬,「韓國의 佛塔美術」,『韓國의 農耕文化』제3집(경기대 박물관), 1991.
鄭永鎬,「咸平 龍泉寺 三層石塔 －조선시대 석탑의 新例－」,『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아세아문화사, 1992.
정영호,『석탑』(빛깔있는 책들 47), 대원사, 1997.
鄭永鎬,「朝鮮時代의 佛塔硏究」,『韓國佛教의 座標』(綠園스님古稀紀念學術論叢), 불교시대사, 1997.

는 출가 행위와 새로운 사찰의 조영을 제한하는 선에서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太宗代에 들어서면서 불교계에 대한 통제와 제한 정책은 적극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寺院田에 대한 철저한 혁파를 주장하는 등 불교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태종은 度牒을 엄격히 제한하였고, 사찰의 토지와 재산을 대부분 국유화하였으며, 眞殿寺院이나 陵寺制를 없애고, 승려들에 대한 최대의 예우제도였던 王師, 國師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조선초기에는 불교 종단이 조계, 화엄, 천태소자, 천태법사, 자은, 남산, 시흥, 중도, 신인, 총지, 중도종 등 크게 11개의 종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태종대가 되면서 조계, 화엄, 천태, 자은, 시흥, 중신, 총남종 등 7개의 종파로 축소된다. 그래서 1407년 종래의 12宗 242寺가 7宗 88寺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사찰의 경제력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승려들의 생활도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뿌리 깊게 신봉되었으며, 선대왕들이 崇佛하였다는 점, 명나라가 好佛하고 있었던 점, 불교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사원의 혁파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불교계에 대한 통제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世宗代에 들어와 불교계에 대한 억압과 사찰에 대한 통제는 한층 진일보하게 된다. 특히 세종은 즉위 후 사원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사사전에 대한 전면적인 혁파를 주장하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사찰의 노비를 전면적으로 혁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크게 위축되었고, 사찰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고려 이후 사원에서 행해진 祈禱와 僧徒의 經行佛式 喪祭禮, 다비장례법 등을 금지시켰다. 1424년 6월에는 7宗이었던 불교 교단의 규모가 兩宗 36寺로 줄어들고 전국 승려의 총수가 3,770명으로 제한되기도 하였다. 세종대에 조계종, 천태종, 총남종을 합하여 禪宗으로 하고, 화엄종, 자은종, 중신종, 시흥종을 합하여 敎宗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세종은 불교계를 선교양종으로 정리한 후 수륙재는 허용했으나 불상의 도금을 금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와 같이 1424년 6월 불교계가 禪敎兩宗으로 통폐합되면서 불교계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과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다.

이와 같이 세종대에 표면적으로 불교계를 위축하는 정책을 유지했지만 왕실에 의한

3) 李炳熙,「朝鮮初期 寺院田의 整理와 運營」,『全南史學』7집, 전남사학회, 1993, p.13.

불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세종 자신도 말년에는 불교를 크게 신봉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은 26년 廣平大君, 27년 平原大君, 28년 昭憲王后의 죽음을 연달아 겪으면서 불교에 더욱 심취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효령대군, 안평대군, 수양대군 등 왕실의 유력인사들이 불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불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4] 1442년(세종 24년) 興天寺舍利塔이 중수되고 慶讚會를 베풀었을 때 如庵和尙 一雲이 법회를 주관하고 왕명에 의하여 直殿 南秀文이 說禪文을 지었다고 한다. 당시 흥천사의 경찬회에는 사방에서 모인 供養僧이 10,818명, 俗人이 387명이었으며 부녀자들이 담장밖에 줄을 지어 밤낮으로 다투어 구경하는 큰 규모였다고 한다.[5] 또한 세종은 경찬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一雲에게 驛馬를 타고 내려가도록 왕명을 내린다.[6] 이러한 것으로 보아 세종도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불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7] 그리고 세종은 재위 32년 병이 들었을 때 불사를 크게 짓고 신미를 침전으로 맞아들여 설법케 하고 존종의 예로 예우하였다고 한다. 세종이 죽자 문종도 선왕이 뜻을 이어 신미에게 封號를 내리고 최대한 예우한다. 문종은 1451년 9월 신미의 주석처인 안평대군을 속리산 복천사로 보내어 세종대에 시작되어 이제야 완공된 중창 불사를 살펴보게 하였다.

世祖代에 들어와 불교계는 이전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세조는 불교를 크게 숭상한 국왕으로 불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친다. 세조가 불교를 숭상한 이유는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여 어수선한 민심을 수습하고 부처의 권위를 통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세조는 기본적으로 불교에 歸依하여 佛心이 높았던 국왕이었다. 세조는 대군시절에 왕실의 불사를 관장하였으며, 즉위 후에도 계속해서 불교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을 펼쳤고 刊經都監을 설치하여 불경의 간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8] 이러한 세조의 불교 진흥책 중에서도 주목을 끄는 것은 원각사지십층석탑의

---

4) 이정주,「朝鮮 太宗・世宗代의 抑佛政策과 寺院建立」,『韓國史學報』제6호, 고려사학회, 1999, p.227.
5)『世宗實錄』24年 3月 乙酉.
6)『世宗實錄』24年 4月 甲寅.
7) 金煐泰,「朝鮮初期 禪師들과 그 禪門宗統」,『芝邨金甲周敎授華甲紀念 史學論叢』, 1994, p.477.
8) 韓佑劤,『儒敎政治와 佛敎 －麗末鮮初 對佛敎政策－』, 일조각, 1993.
勸延雄,「世祖代의 佛敎政策」,『震檀學報』75, 진단학회, 1993.

건립이다. 이 석탑의 건립에는 왕실과 국가 원로가 대부분 참여하는 국가적인 대역사였다.[9] 이와 같이 세조는 불경을 간행하는 등 불사를 크게 지원하며, 승려들에 대한 예우를 높여주었는데 대표적인 승려가 신미였다. 세조는 1464년 2월 신미가 머물고 있는 속리산 복천사로 가서 만났으며, 12월에는 신미에게 쇠 5,000근과 쌀 500석과 면포와 정포 각 500필을 하사하였다. 또한 신미는 세조를 위하여 오대산 상원사를 중창하였다.[10] 한편 조선 성종대(1469~1494) 이후에는 불교계가 상당히 위축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림들의 대두와 함께 불교계에 대한 억압이 철저해지면서 사찰들은 축소되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로 서서히 전락해 간다.[11]

이와 같이 조선 초기 국왕들의 억불숭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궁중에서조차 信佛하는 풍조가 여전히 있었다. 그리고 왕실에서도 조정 및 유생들의 강력한 만류와 척불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妃였던 昭憲王后, 세종의 實兄이었던 효령대군, 세종의 2子인 수양대군, 세종의 3子인 안평대군 등은 유력 승려들과 인연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지원하였다. 또한 태종의 嬪이었던 懿嬪權氏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기도 하였다.[12] 그리고 세조는 출가를 손쉽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기도 했다.

한편 成宗은 배불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첩제를 정지시키면서 '지금 군인의 수효는 많지 않은데 승려가 되는 자가 많으므로 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지시킨다.' 라고 傳旨를 내렸다고 한다. 이것은 승려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다. 조선 정부가 승려들의 수를 제한하고자 한 것은 승려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두기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度牒制는 공식적으로 승려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계가 전대에 비하여 위축되거나 성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찰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전대에 비하여 불사가 성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부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불사가 이루어졌다. 그

---

9) 申紹然, 「圓覺寺址 十層石塔의 西遊記 浮彫 硏究」,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46.

10) 金煐泰, 「朝鮮初期 禪師들과 그 禪門宗統」, 『芝邨金甲周敎授華甲紀念 史學論叢』, 1994, p.480.

11) 崔柄憲, 「朝鮮時代 佛敎法統說의 問題」, 『韓國史論』 19,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8, p.282.

12) 文淳會, 「普雨大師의 佛敎中興運動」, 『東國思想』 19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986, p.175.

러한 측면을 반영이라도 하듯 조선전기에도 석탑, 불상, 석조부도 등 불교미술품이 조성되었음을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전기는 전체적으로 寺社의 革去, 寺社田民의 제한, 僧侶度牒制 등이 강화되면서 승려들에 대한 예우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나아가 조선 전기는 전대에 비하여 불교계가 위축되면서 佛事가 감소하고, 정부의 정책도 기본적으로 불교계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었다.[13] 이에 따라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탑파의 건립은 전대에 비하여 상당히 위축된다. 특히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성행하면서 불교계의 위축과 아울러 승려들에 대한 예우가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추락한다. 이에 따라 조선 전기에는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 경제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불교계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조선후기 불교정책은 기본적으로 崇儒排佛의 큰 틀은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임진왜란 이후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새롭게 변화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사회적인 변화와 불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가능하였다. 특히 17세기 이후 불교계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변화되었다.[14]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당시 승려들을 중심으로 불교계가 보여준 護國佛敎로서의 대응은 불교의 위상과 승려들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전란 이후 폐허화된 사찰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재한 수많은 사찰들이 佛事를 진행하는 등 불교계가 재도약을 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불교계가 정비되고 승려들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불교계는 17세기 중반경에 접어들면서 고려시대 못지않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조선후기에는 많은 불상들이 조성되고, 금당이 창건되거나 중수되며, 각종 佛書가 찬술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유교에 밀렸던 불교의 역사적・종교적 위상이 점차 높아지면서 유교와 불교가 양립되어 갔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에는 전국의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많은 불사가 성행하게 된다. 그런데 불가의 신앙 활동이나 원활한 법회를 수행하기 위한

13) 吳京厚, 「『東師列傳』의 史學史的 檢討」, 『史學硏究』 63호, 한국사학회, 2001, p.128.
14) 정석종・박병선, 「朝鮮後期 佛敎政策과 願堂(1)」, 『民族文化論叢』 18・19합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p.253.

佛殿이나 佛像 조성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탑파의 건립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사원에 석탑이 파손되지 않고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석탑을 비롯한 탑파의 건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조선시대 탑파의 현황과 양식

조선시대는 전대에 비하여 많은 양의 탑파가 건립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양식의 석탑이 건립되었다. 탑파의 본래적 의미와 기능에 주안점으로 두고, 재료에 따라 크게 목탑과 석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불가의 본래적 의미와 기능을 가진 조선시대 목탑은 현재 법주사 팔상전인 오층목탑 1기가 유존되어 있다. 소실된 이후 중건된 쌍봉사 대웅전이 3층의 목탑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심초석과 사리장엄구, 찰주 등 불탑으로서의 목탑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시설물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목탑의 범주로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외양이나 가구 수법 등은 목탑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중요한 목조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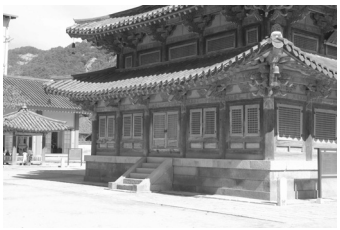
먼저 대표적인 목탑인 法住寺 捌相殿은 1968년 해체 수리시 발견된 塔誌의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라과 정유재란를 거치면서 법주사의 탑을 비롯한 모든 건물이 소실되자 전란이 끝난 직후인 1605년(선조 38년)부터 1626년까지 복원 사업이 진행되었고, 四溟大師가 여기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법주사 팔상전은 17세기 초반경 건립된 목탑의 대표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초기 건립된 가장 이른 석탑으로는 유점사 구층석탑을 들 수 있다. 이 석탑은 관련 기록에 의하면 1461년(세조 6년)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기단부는 평면 사각형으로 각 면에 전형적인 조선시대 양식의 안상을 새겼으며, 옥개석은 처마부를 형식적으로 처리

하고 낙수면을 두툼하게 처리하여 둔중한 인상을 주고 있는 점 등은 고려말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조선초기 건립된 대표적인 석탑으로 원각사지 십층석탑이 있다. 현재 서울 탑골공원에 서 있는 탑으로 경천사지 십층석탑과 치석과 결구 수법 등 양식적으로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는 석탑이다.[15] 이 석탑은 표면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1467년(세조 13년) 건립되어 경천사지 석탑이 건립된 지 119년 후에 원각사지에 건립되었다. 원각사는 조선시대의 숭유억불정책 속에서도 중요한 사찰로 보호되어 오다가 1504년 연산군이 이 절을 聯芳院이라는 이름의 기생집으로 만들어 승려들을 내보냄으로써 없어지게 되었다.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탑 구석구석에 표현된 화려한 조각이 대리석의 회백색과 잘 어울려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기단부는 3단으로 되어있고, 위에서 보면 평면 형태가 亞자 모양이다. 기단의 각 층 면석부에는 여러 가지 장식이 화려하게 조각되었는데 용, 사자, 연꽃무늬 등이 표현되었다. 塔身部는 10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층까지는 기단과 같은 亞자 모양을 하고 있고 4층부터는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각 층마다 목조건축을 모방하여 지붕, 공포, 기둥 등을 세부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보은 법주사 팔상전

15) 고유섭 선생님에 의하면 경기도 개풍군 상도면 衍慶寺에도 동일한 형태의 탑이 있었는데 1919년을 전후한 시기에 파괴되어 파편으로 남아 있다고 하여 또 다른 1기의 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은 법주사 팔상전

화순 쌍봉사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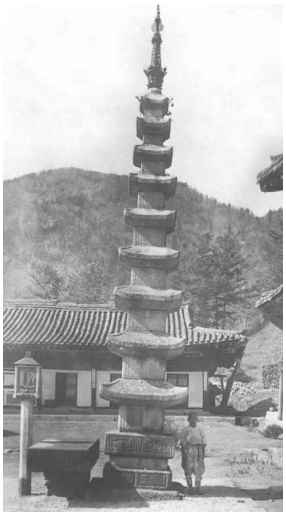
원각사지 십층석탑

낙산사 칠층석탑은 조선 세조대 지방에 건립된 대표적인 석탑이다. 낙산사는 낙산사 동종명에 따르면 세조가 재위 12년째에 금강산 순행길 중 낙산사에 이르러 정희왕후와 세자(예종)와 함께 관음보살상에 예배하자 사리가 분신하고 오채가 빛나는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자 세조가 서원을 내어 학열에게 낙산사의 중창을 명했다고 한다. 이에 세자(예종)의 자복사로 삼아 백여칸으로 중창하고 소용되는 것들을 갖추었다. 예종이 즉위한 후 세조의 서원을 추념하여 1469년 낙산사에 범종을 주조하였다고 한다. 즉 낙산사 범종은 낙산사의 중창을 기념하여 조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낙산사석탑은 세조 때 중창 당시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洛山寺記」에 의하면 이 석탑은 창건 당시 3층이던 것을 1467년에 이르러 현재의 7층으로 조성하였다고 한다. 당시 수정으로 만든 念珠와 여의주를 탑 속에 봉안하였다 한다.[16] 基壇

16)「洛山寺記」(1470년, 成宗 1)

夫我大士之行化也 或處懸崖萬丈 以絶其懿 或住海岸千尋 以臨其虛 是蓋圓通無碍之隨處應現 抑普門三昧不可思議者也 襄陽之東二十餘里有山 自大嶺東騖而止 磅礴環拱 峰巒聳秀 勢若鳳舞 寺據其中峰者曰洛山 有觀音正趣二大士像焉 端嚴妙麗 天下無比 其靈迹奇應 現於傳記者 比比而是我國四衆之遊金剛五臺者 必之洛山而瞻拜焉 我 世祖大王之東巡也 與 慈聖大王大妃殿下 率王世子 親禮大士 獻香幣 于時異香馥郁 聞于數里 舍利分身於大士 光明子盧 世祖盛諸鉢盂 須臾於扈從臣僚 莫不歡喜頂戴

部는 정사각형의 바닥돌 위로 밑돌을 놓았는데 윗면에 24잎의 연꽃무늬를 새겼다. 塔身部는 지붕돌과 몸돌을 1층으로 하여 7층을 이루고 있다. 각 층의 몸돌 아래로는 몸돌보다 넓고 두꺼운 괴임이 1단씩 있어 특징적이다. 지붕돌은 경사면이 평탄하며 네 귀퉁이의 들림이 잘 어우러져 전체적인 모양이 경쾌하다. 상륜부는 찰주를 중심으로 원나라의 喇嘛塔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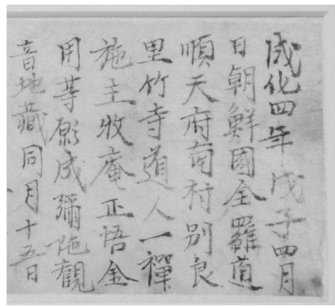
북한 유점사 구층석탑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 I , 1997)

양양 낙산사 칠층석탑

寺下濱海 有石漫 州人相傳 大士湧出之處 世子鞾禮於石漫 又得舍利 世祖益驚喜焉 乃命禪德學悅 重炷其寺 而且建石塔 以藏如意寶珠 相傳東海龍王獻于觀音者也 兩宮立願之意 慾以資 世子福壽之佑 而其營締之費 皆出內帑 及刊經都監 始於戊子春三月 告訖於己丑夏四月 及 睿宗卽位 感 先王遺緣之意 申 命有司 無敢或怠 於是 殿堂寮舍曹廠廚庫 各奠其位 金碧丹綺 輝映山門 法器什物 悉備悉贍 以其年月日 設大會以落之 睿宗 命臣繼禧 奉香幣赴焉 且賜田畓臧獲 以供香花 以爲常住之資 江原一道 國家東極之地 其山谿之險 道里之阻 千乘萬騎 無由一至 而我 世祖大王 親御六飛 登臨瀛海 擧玉趾禮金仙 乃發宸衷命令重炷 使寶虐洛伽之境 煥然再新 遂爲金剛五臺諸刹之最奇觀 實此道此山 千百年之幸也 抑大士潛孚密感所應歟 不幸無祿 世祖 睿宗 相繼賓天 嗚呼痛哉 主上殿下 光 承祖業 誕登寶位 聖德維新 治化方洽 其使 睿算無疆 鴻圖永固 宗枝茂而風雨時 則惟我大士神功妙力之所發 其必有在者歟

成化六年 六月日 推忠定難翊戴功臣崇祿大夫西平君兼知經筵事臣韓繼禧奉 敎謹記

순천 매곡동 석탑은 탑신석이 남아있지 않아 원래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발원문이 있는 사리구가 수습되었다. 유물은 청동 佛龕과 금동아미타삼존불상, 불상에서 나온 發願文과 사리를 포함한 腹藏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석탑의 건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발원문에는 1468년(세조 14)이라는 제작 연대와 함께 불상을 조성한 배경 및 시주자 28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 당시 佛事 방식과 아울러 구체적인 석탑의 건립 시기를 전해주고 있다.[17] 석탑은 기단부는 남아있지 않고 옥개석만 남아있는데, 규모가 크고 정연한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어 신라의 전형양식 석탑을 모방하여 건립된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순천 매곡동 석탑과 사리구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은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현등사에 소재하고 있는데, 현등사는 조선 초기 함허당 기화대사가 1411년 중창한 사찰이었다. 그리고 조선 초기 신미 등 유력 승려들이 머물면서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찰이었다. 특히 현등사는 세종의 7자 평원대군과 그의 부인 홍씨, 예종의 2자 제안대군 영효공과 그의 두 부인의 위패가 모셔진 왕실의 원당이었다. 이와 같이 현등사는 조선 전기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왕실의 후원에 의하여 불사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유력 승려들이 주석하였던 사찰이었다. 이 석탑에서는 1470년 대방부부인 宋氏가 시주하여 사리 5과가 출토된 탑

17) 順天市 梅谷洞 석탑 발견 成化四年(1468)銘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의 발원문 앞부분.
'成化四年戊子四月/日朝鮮國全羅道/順天府南村別良/里竹寺道人一禪/施主牧庵正悟金/用等願成彌陀觀/音地藏同月十五日/初點開眼隨喜/施主同發願文/我成三尊同隨喜/九品蓮臺次定生/親見三尊滿月容/授記言下悟無生'

을 수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이 「현등사탑개조기」[18]를 비롯하여 『봉선사본말사지』, 『운악산현등사적』, 「현등사중수기」 등에 전하고 있다. 址臺石은 평면 사각형이며, 하층 기단은 밑부분에 감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상부에 9엽의 복련문을 장식하였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석재로 치석되었으며, 탑신의 각 면에 양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옥개받침은 1층과 2층은 4단, 3층은 3단을 마련하였다. 현등사 삼층석탑과 양식적으로 유사한 석탑이 강릉 용연사에도 세워져 있다. 용연사 석탑은 기단부에 끝이 뾰족한 복련문이 장식되어 있고, 둔중한 대석형 갑석이 결구되었으며, 옥개받침이 약식으로 처리된 두툼한 옥개석 등 전체적인 양식이 현등사 삼층석탑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는 석탑으로 조선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륵사 다층석탑은 극락보전 앞에 세워져 있으며, 大理石으로 만든 方形의 석탑으로서 基壇部는 2층이며, 상하의 甲石에는 연꽃무늬를 조각하였다. 또한 기단 面石에 장식되어 있는 龍紋와 雲紋는 뛰어난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다. 塔身部는 탑신과 옥개석이 별석으로 치석되어 결구되었으며, 상륜부는 결실된 상태이다. 기단부와 탑신부에서 일부 고려시대 석탑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 치석과 장식 수법은 조선화된 석탑 양식이 적용되었다. 이 석탑은 신륵사가 1472년(성종 3년) 대규모 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석탑도 이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과 사리구

강릉 용연사 삼층석탑

18) 경기도, 『畿內寺院誌』, 1988.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남양주 수종사 팔각 오층석탑

수종사 팔각 오층석탑은 1957년 5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의뢰를 받아 해체 수리가 이루어졌다. 당시 초층 탑신석과 옥개석, 기단 면석부 등에 원형으로 봉안공을 만들어 금동불, 보살상, 금동불감, 목조불상 등을 안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1970년 5월에 수종사 주지스님이 이 석탑을 사찰 경내로 이건할 때 2층과 3층의 옥개석 상면 봉안공에서 12구의 금동불과 보살상이 발견되었으며, 봉안공 측면에 弘治 6年이라는 墨記가 발견되었다. 한편 수종사는 여러 관련 기록으로 보아 1459년(세조 5년) 세조에 의해 중창되었다. 그런데 석탑의 초층 탑신에 봉안된 석가여래상은 태종의 후궁으로 1479년 6월 죽은 明嬪 金氏가 조성한 것으로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석탑은 초층 탑신 발견 석가여래상 복장 발원문에 의하면 성종의 후궁인 淑容 洪氏, 淑容 鄭氏, 淑媛 金氏가 주상전하의 성수만세와 소생인 왕자 왕녀들의 福과 長壽를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석가여래상과 관음보살상을 봉안하기 위하여 건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석탑에 안치된 불상 중에 석가여래상은 석탑 건립 당시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성된 것을 성종의 후궁들이 개금하고 복장을 넣어 봉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석탑의 구체적인 건립 시기와 관련하여 1459년 수종사 창건, 1479년에 죽은 명빈 김씨가 조성한 불상, 1493년 성종의 후궁들에 의한 봉안 등이 시기별로 주목된다. 그리고

1628년 기단부에 비로자나불의 봉안이 또다시 이루어졌다. 이중에서 어느 시기에 이 석탑이 건립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석탑의 양식을 고려할 때 건립 시기와 관련하여 가장 가능성 있는 시기는 1493년(성종 23년) 성종의 후궁들이 명빈 김씨가 조성한 불상을 포함하여 새롭게 조성한 물품들을 봉안할 때 석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19]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1469년 조성 水鍾寺鍾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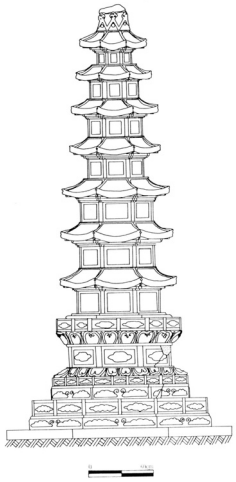
妙寂寺 八角 多層石塔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222번지의 묘적사 대웅전 앞에 위치한 석탑이다. 묘적사는 조선 세종 이후 왕실의 궁인 및 비빈들의 후원을 받았던 사찰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묘적사는 김수온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당시 유력한 고승이었던 학열과 학조가 머물기도 했던 사찰이다. 이 석탑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종사 8각 5층 석탑과 동일한 형식과 양식을 보이고 있어 동일 장인이나 그 집단에 의하여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부는 불상대좌와 유사한 양식으로 다단의 연화대석을 결구하여 구성하고 면석부에 좌우로 펼쳐진 안상을 조식한 것은 고려시대 보현사 8각 13층 석탑과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탑신부의 평면을 팔각으로 구성하여 모서리마다 원형 기둥을 세운 것도 고려말기 석탑 양식을 계승하면서 조선초기에 건립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일부 파손된 석탑 부재들이 남아있으며, 석탑의 양식과 관련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선 중종 초에서 16년 사이에 건립(1506~1521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정부 回龍寺 五層石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회룡사 극락보전 앞에 건립되어 있다. 이 석탑은 신라 선덕여왕 6년(632년) 이곳 회룡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사리를 봉안했다는 전설을 지닌 탑이기도 하다. 그러나 석탑의 양식으로 보아 그대로 믿기에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 한국전쟁 당시 심하게 파손되어 옥개는 거의 완전한 것이 없고, 원래의 옥신과 상륜부 또한 없어졌다. 현재의 모습은 1979년 깨어지고 없어진 것을 새로 복원한 것으로 2, 3, 4층의 탑신과 1, 3, 5층의 옥개는 새로 만든 것이며, 다른 층의 것들도 일부 보수되었다. 기단부는 사각형으로 불상의 대좌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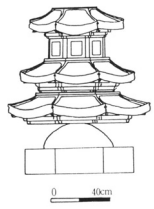
19) 柳麻理, 「水鐘寺 金銅佛龕 佛畫의 考察」, 『美術資料』 30, 국립중앙박물관, 1982.
鄭永鎬, 「水鍾寺石塔內發見 金銅如來像」, 『考古美術』 106・107호, 韓國美術史學會, 1970.
尹武炳, 「水鍾寺 八角五層石塔內 發見 遺物」,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69.

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표면에 연화문과 안상을 조각했는데, 전형적인 조선시대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 석탑은 사찰이 중창되면서 이건되었다. 석탑의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15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회룡사 오층석탑과 양식적으로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는 석탑이 천안 晩日寺 石塔이다. 이 석탑은 현재 영산전 앞에 있는 대형 암반위에 세워진 탑으로 원래 위치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탑신부가 파손되었고 일부 부재들이 결실된 상태여서 정확한 층수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남아있는 부재들로 보아 칠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단부는 복련이 장식된 사각형 하대석을 마련하였고, 앙련이 장식된 상대석을 결구하여 마치 불상의 사각형 대좌와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면석부에는 안상이 좌우로 나란히 조각되어 있는데 조선 초기 건립된 석탑의 안상들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탑신부의 옥개석은 받침부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였고,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마루부는 반원형으로 높게 돌출시켰다. 2층 이상은 탑신석과 옥개석을 동일석으로 치석 결구하였다. 탑신석 표면에 범자문과 좌상의 불상이 새겨져 있어 다른 석탑에서 보기 드문 양식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 석탑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기단부와 탑신부의 치석 수법과 양식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 묘적사 팔각 다층석탑



남양주 묘적사 경내 석탑재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천안 만일사 석탑

안성 淸願寺 七層石塔은 청원사 대웅전 앞에 세워져 있다.[20] 석탑의 높이는 3.5m이며, 단층 기단 위에 7층 탑신부를 올렸다. 이 석탑은 여러 개의 돌로 지대석을 조립하고 기단을 놓았다. 기단의 하대석 각 면에는 안상을 조각하였고 윗면에는 연꽃 문양을 새겼다. 기단의 면석은 4매의 돌로 결구되었으며, 각 면에는 우주가 표현되어 있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7층만은 예외로 탑신석과 옥개석이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 옥개석의 아래쪽에는 얕은 옥개받침이 있고 낙수면의 경사와 반전은 위로 올라갈수록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상륜부에는 보주가 올려져 있다. 이 석탑은 세부적으로 간략화된 측면이 많고, 기단부의 안상과 연화문 표현 기법, 옥개석의 치석 수법 등으로 보아 조선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21] 그리고 청원사 칠층석탑의 기단부는 고창 선운사 대웅전 앞에 세워져 있는 육층석탑의 기단부와 강한 친연성을 보이

20) 黃壽永,「安城 淸源寺의 高麗寫經」,『東洋學』 제5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5.

21) 현재 청원사 요사채 옆에는 또 다른 석탑 부재가 남아있다. 석탑은 도괴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일부 부재를 제외하고 많은 부재들이 결실된 상태이다. 현재 기단부의 면석과 지대석 일부, 복련이 조각된 갑석, 옥개석과 탑신석 등이 남아있다. 1층 탑신석은 근래에 새롭게 만들어 끼워 놓은 것이다. 석탑의 조성 시기는 갑석 상면에 장식된 복련문과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7층석탑보다는 이른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존의 석탑이 훼손되자 조선시대 들어와 새롭게 7층석탑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고 있다. 고창 선운사는 조선 세종대에 크게 활약한 행호선사가 이 석탑을 보고 크게 중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석탑에서 탑신부는 고려시대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기단부는 일부 보수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상대갑석이 회룡사, 만일사, 청원사의 석탑들과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하대석과 상대갑석이 면석부가 높게 마련되고 그 표면에 좌우로 긴 안상을 새겼는데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안상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조선전기 행호선사가 선운사를 대대적으로 중건하면서 석탑에 대한 보수가 실시되면서 새롭게 기단부의 일부 부재가 보강된 것으로 보인다.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기단부

고창 선운사 육층석탑 기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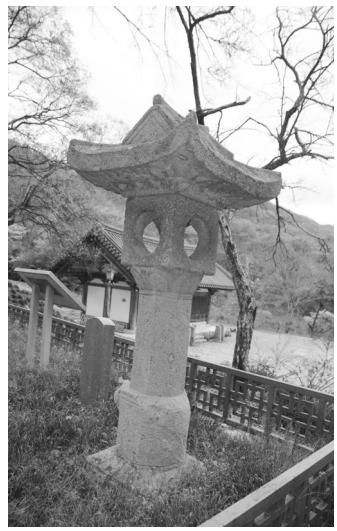
고창 선운사 육층석탑

함양 碧松寺 三層石塔은 벽송사 경내 북편으로 형성된 능선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찰 가람상과는 다른 장소에 배치되어 있어 그 성격과 기능이 주목되는 석탑이다. 이 석탑은 2층기단을 마련하여 3층 탑신부를 구성하였는데, 전형적인 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단부는 하대와 상대갑석이 결구되었고 상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을 결구하였는데, 낙수면은 경사가 급하고 전각부의 반전이 경쾌하며, 옥개받침은 2단과 3단으로 구성되었다. 벽송사는 조선 중종 15년(1520년)에 碧松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따라서 이 석탑도 1520년경에 건립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咸平 龍泉寺 三層石塔은 바로 옆에 세워진 석등의 명문 기록으로 보아 동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1685년경에 석등과 함께 가람의 요소로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독특하게 금당 앞이 아닌 금당 동편으로 석등과 나란히 세워진 점이 독특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淸州 菩薩寺 五層石塔이 있다. 석탑은 전체적으로 치석 수법이 간략화의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정연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 석탑은 2층 탑신 동면에 사각형으로 구획한 후 좌우에 세로로 '康熙癸未'라는 음각 명문이 남아있어 구체적인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조선후기 석탑의 편년 기준작이다. 명문으로 조선 숙종 29년(1703)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탑신석 표면에 범자문을 새긴 것이 특징적이다.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함평 용천사 삼층석탑



함평 용천사 석등

다음으로 전형적인 고려시대 석탑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용주사 천보루 앞 오층석탑이 있다. 용주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고려 광종대(949~975)에 소실된 葛陽寺의 옛터에 재창건된 사찰이다. 조선 정조가 1790년 팔도 관민의 施錢 8만 7000여냥을 거두어 145칸의 사찰을 세우고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顯隆園의 명복을 비

는 陵寺로 삼았다.[22] 이 석탑은 용주사 천보루 앞에 위치하고 있다. 사방에는 사각형 돌 기둥을 세워 놓았는데, 각 기둥에 "世尊舍利", "泰安寶塔", "臨濟家風", "古今玄要" 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그리고 직사각형 배례석이 석탑의 남쪽에 마련되어 있다. 기단부는 1매의 지대석을 놓고 우주가 모각된 면석부를 마련한 후 甲石을 올린 단층기단이다. 甲石은 1매로 상면에 角弧角形의 3단괴임을 마련하여 탑신석을 받치도록 하였다. 塔身石은 隅柱가 模刻되어 있으며, 탑신석의 높이가 2층부터 급격하게 체감되어 있다. 屋蓋石은 옥개받침이 3단이며 낙수면은 경사가 완만하고 전각부가 살짝 反轉되어 있다. 상륜부는 覆鉢, 仰花, 寶珠가 남아있다. 용주사의 연혁과 가람 등으로 보아 조선 정조대(1776.3~1800.6.28)에 건립된 석탑으로 보인다.

청주 보살사 오층석탑

화성 용주사 천보루 앞 오층석탑

大源寺 多層石塔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대원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기단부는 넓게 지대석을 마련한 후 모서리에 우주가 아닌 합장한 供養 人物像을 세웠고, 나머지 사면에는 四天王像을 양각하여 배치하였다. 탑신부에서 탑신석은 낮게 마련되었고,

22) 趙純香,「龍珠寺板 父母恩重經研究」,『論文集』22집, 경기대학교, 1988.

옥개석은 처마부를 두툼하게 처리하여 둔중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석탑은 석탑 앞쪽에 남아있는 배례석의 명문으로 1784년 중건된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석탑의 양식은 조선시대 석탑 양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석탑 옆으로 중건되기 전에 있었던 석조물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재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인 1798년 鍊岩堂 智允스님에 의하여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는 靈塔寺 七層石塔이 있다. 이 석탑은 영탑사 법당 뒤의 바위 위에 서 있어 풍수 비보적인 성격으로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석탑과 관련하여『당진군사』에는 조선 정조 22년(1798년) 鍊岩堂 智允스님이 유리광전을 보수하면서 그 뒤 바위에 5층탑을 세운 후 절 이름을 '靈塔寺'라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원래는 7층탑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후 훼손되어 5층만 남아있던 것을 1920년대에 이 절의 신도들에 의해 다시 7층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한다.

道詵寺 五層石塔이 소재하고 있는 道詵寺는 신라말기 주요하게 활약한 先覺國師 道詵(827~898年)이 전국의 명산 승지를 유람하다가 삼각산에 이르러 산세가 절묘하고 풍경이 좋아 불법이 크게 흥할 것이라 예언하고 창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도선이 현재의 도선사를 창건했다는 직접적인 관련 기록이나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적 유물이 없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도선사가 서울 인근에 있었던 사찰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조선후기로 보인다. 도선사는 1864년 金左根(1797~1869年)의 시주로 절을 중수하고, 七星閣을 건립했다고 한다. 김좌근은 조선말기의 문신으로 永安府院君 祖淳의 아들이었으며, 純祖妃였던 純元王后가 그의 누이였다. 그는 예조판서, 형조판서, 훈련대장, 공조판서, 호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세 번이나 보직되어(1853~1863년)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중심인물이었다. 이후 1864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자 영의정에서 물러나 실록총재관으로『哲宗實錄』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866년 耆老所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김좌근은 조선말기 안동김씨 세도정치 시기의 핵심인물이었다. 따라서 도선사의 중건에 많은 지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東湖 任準스님이 1887년 석불 앞에 오층석탑을 세워 진신사리를 봉안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어 석탑의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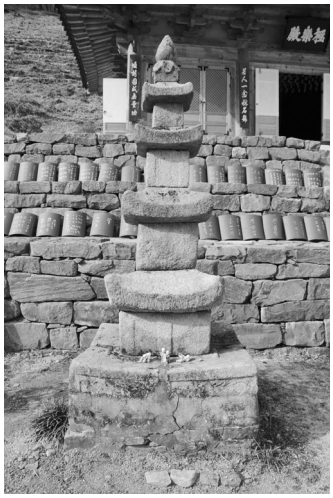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당진 영탑사 칠층석탑

서울 도선사 오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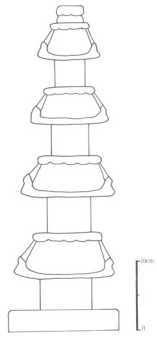
의령 修道寺 石塔이 있는 수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인 해인사의 말사이다. 662년(신라 문무왕 2) 元曉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원효가 이 절 뒷산에 있는 병풍바위에서 100여 명의 제자와 함께 수도했다고 하며 이런 까닭에 절 이름을 수도사라고 불렀다. 수도사는 1420년(세종 2년) 國律, 鼎巖, 柳谷 등이 중창하였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것을 惟政이 중건하였다고 한다. 현재 석탑의 양식과 치석 수법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령 수도사 석탑이 있다. 수도사는 임진왜란 당시 전소되어 중건된 사찰로 전하고 있다. 이 석탑은 간략한 기단부와 두툼한 옥개석의 처리 수법 등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조선후기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형탑으로 남한산성 출토 소형 오층석탑,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 지물 목탑 등이 있다.



의령 수도사 석탑

남한산성 출토 소형 오층석탑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 지물 목탑

Ⅳ. 조선시대 탑파의 양식적 특징과 의의

고려시대까지는 최고 권력자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폭넓게 신앙되고 있었는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중심적인 종교로 자리매김되었던 불교가 서서히 위축되면서 쇠퇴의 기로에 서게 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승려들에 대한 예우가 낮아지면서 佛事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유교사관을 가진 소위 신세력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불교미술의 발전은 부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이 건국된 직후부터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인 조선전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불교가 위축된 시기였고, 극히 제한적으로 佛事가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그래서 불교미술사에서 가장 적은 양의 불교관련 미술품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조선전기에 조성된 불교미술품은 커다란 흥미를 자아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왕조 교체에 따른 새로운 사회의 도래와 그에 따른 佛事의 감소는 당대

의 불교문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미술의 분기점 내지는 발전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전기에 조성된 불교미술품은 한국 불교미술사 뿐만 아니라 한국 미술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유교적 대의명분에 밀려 불교가 전대에 비하여 침체내지는 쇠퇴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초기 불교는 유교적 정치 지배이념의 등장과 고려후기 계속된 불교의 폐단으로 지배층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으나 고려왕조의 유습과 왕실의 보호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 발전할 수 있었다.[23] 또한 불교가 성리학을 내세우는 지배층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으나 민중들로부터는 중심적인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소위 抑佛崇儒 정책은 지배층인 사대부들의 논리였으며,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일들과 무관한 평민들에게 유교는 실감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오히려 불교가 현실적 고난의 극복과 내세적 갈망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종교였다.

조선전기를 대표적인 왕대별로 불교의 성쇠를 보면 太祖는 불교정비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불교계의 반발을 고려한 불교우대정책기조, 太宗은 불교계를 7종으로 통폐합과 242寺의 존속에 따른 불교통폐합정책기조, 世宗은 태종대의 불교 정책을 계승 확대하여 불교계를 선교양종으로 통폐합하고 36寺의 존속에 따른 불교축소정비정책기조와 말기에 일시적인 불교우대회복정책기조, 世祖는 왕권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왕과 왕실에 의한 적극적인 불교계 지원으로 불교성행정책기조, 成宗은 성리학을 중시하고 불교를 멀리하면서 불교소극정책기조, 燕山君은 불교계를 크게 탄압하고 부정하면서 불교탄압정책기조, 明宗은 불교를 인정하고 유교와 병존시키려는 불교지원유지정책기조를 표방했었다고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전기 好佛한 왕으로는 태조, 세종, 세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排佛한 왕으로는 태종, 성종, 연산군, 중종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종대에 들어서면서 불교계에 대한 통제와 제한 정책은 적극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사원전에 대한 철저한 혁파를 주장하는 등 불교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태종은 度牒을 엄격히 제한하였고, 사찰의 토지와 재

23) 朴昞璇,「朝鮮後期 願堂考」,『白蓮佛教論集』5・6, 백련불교문화재단, 1996, p.347.

산을 대부분 국유화하였으며, 眞殿寺院이나 陵寺制를 없애고, 승려들에 대한 최대의 예우제도였던 王師, 國師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조선초기에는 불교 종단이 조계, 화엄, 천태소자, 천태법사, 자은, 남산, 시흥, 중도, 신인, 총지, 중도종 등 크게 11개의 종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태종대가 되면서 11개의 종파는 조계, 화엄, 천태, 자은, 시흥, 중신, 총남종 등 7종으로 축소된다. 그래서 1407년 종래의 12宗 242寺가 7宗 88寺로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세종대에는 조계종, 천태종, 총남종을 합하여 선종으로 하고, 화엄종, 자은종, 중신종, 시흥종을 합하여 교종으로 만들었다. 1424년 6월 불교계가 禪敎兩宗으로 통폐합되면서 불교계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과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왕이 배불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원천적으로 불교 행사나 불사를 막지는 못하였다. 조선전기의 佛事는 大君이나 大妃 등을 중심한 왕실이나 궁궐에 머물렀던 후궁이나 궁녀들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사찰의 경제력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승려들의 생활도 어려워졌다. 그러나 불교는 뿌리 깊게 신봉되어 왔으며, 선대왕들이 崇佛하였다는 점, 명나라가 好佛하고 있었던 점, 불교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사원의 혁파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불교계에 대한 통제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세종도 선교양종만을 남겨 놓고 수륙재만 허용했으며, 불상의 도금을 금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국왕이 표면적으로 불교계를 위축하는 정책을 유지하였지만 왕실에 의한 불사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조선초기 국왕들의 강한 억불숭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궁중에는 信佛하는 풍조가 있었다. 그리고 왕실에서도 조정 및 유생들의 강력한 만류와 척불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妃였던 昭憲王后, 세종의 實兄이었던 효령대군, 세종의 2子인 수양대군, 세종의 3子인 안평대군 등은 적극적으로 불교계를 지원하였다. 또한 태종의 嬪으로 貞惡翁主의 생모였던 懿嬪權氏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기도 하였다.[24]

조선시대 불교는 전반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내려가는 불교가 아니라 밑으로부터 형성된 민중불교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인다.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오랜 전쟁으로 인한 질병, 죽음, 불안, 공포 등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고자 새로운 사회

24) 文淳會,「普雨大師의 佛敎中興運動」,『東國思想』19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986, p.175.

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교는 많은 대중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면서 대중적인 종교로서 대중불교로 자리잡게 된다.

조선시대는 불교가 대대적으로 성행하지 못하였고 불상을 위주로 불교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수의 석탑이 건립되지는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조선 정부가 억불숭유 정책을 표방하면서 불교계에 대한 억압과 등한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미 많은 사찰에 대부분 석탑이 건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석탑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석탑은 재료의 특성상 목조건축물이나 금동 또는 목조 불상에 비하여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졌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새로운 석탑을 세우기 보다는 기존의 석탑을 보수하거나 새롭게 활용하여 가람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사의 중심이 목조건물이나 불상으로 치중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탑이 세워지지 않았다.

조선 전기에 탑파의 건립이 드물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먼저 불교계의 위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억불숭유 정책을 펼치면서 불교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사찰 경제도 축소내지는 서서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석조부도의 건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 사찰 경제는 전시기보다 그 규모나 운영 면에서 크게 위축되었고, 고려시대와는 달리 국가나 지방 유력층들의 지원이 아닌 사찰에 머물고 있는 승려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25]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탑파의 건립 자체가 제한되었음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불교식 장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탑파의 건립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후기 들어와 변화되지만 목조건물은 중창이나 중건이 요구되었지만 내구성이 강한 석탑은 그러한 필요성이 없었다. 따라서 석조 위주인 탑파는 목조건물보다 새롭게 조성되는 경우가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석탑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가 작고, 전체적인 외관이 세장하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건립된 석탑들은 이전에 비하여 공예적인 요소와 그러한 인상을 많이

25) 李炳熙,「朝鮮時期 寺刹經濟 硏究의 動向과 課題」,『배종무총장퇴임기념사학논총』, 1994, p.157.

주고 있다. 또한 표면에 장식이나 장엄이 많이 표현되면서 화려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건립된 석탑들은 대부분이 왕실의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전 시대에는 석탑이 왕이나 왕실의 원탑으로 건립되었다 해도 사리를 봉안한 불탑이라는 기념물로서의 목적에 충실하였는데, 조선시대 건립된 일부 석탑들은 왕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표방한 조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불탑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상징성과 기능성에 왕이나 왕실의 세속적인 권력을 결부시켜 왕권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또한 왕의 권위를 부처의 지위와 동일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도 보인다. 조선시대 석탑은 이전에 비하여 전체적인 규모가 축소되면서 층수가 높아지고, 기단부도 간략하게 마련된다. 탑신부의 탑신석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옥개받침은 옥개석 하부 안쪽으로 낮게 형식적으로 처리한다. 옥개석은 낮게 마련되며 둔중한 느낌을 준다. 이와는 달리 원각사지10층석탑처럼 규모가 크고 화려한 석탑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들어와 다각의 평면을 가진 석탑들이 개경과 평양 등을 중심한 지역에서 다수가 건립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조선 초기 묘적사, 수종사 석탑 등 다각의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양식적으로 친연성을 보이는 고려시대 석탑으로는 홍복사 6각 7층석탑, 보현사 8각 13층 석탑 등이 있다. 이들 고려시대 석탑들은 조선시대 들어와 묘적사, 수종사 석탑 양식이 출현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Ⅴ. 결 론

조선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전기는 寺社의 革去, 寺社田民의 제한, 僧侶度牒制 등이 강화되면서 승려들에 대한 예우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나아가 조선 전기는 전대에 비하여 불교계가 크게 위축되면서 佛事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정부의 정책도 불교계

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석탑 건립뿐만 아니라 佛事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축된다. 특히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성행하면서 불교계의 위축과 아울러 사찰에 대한 지원 감소, 승려들에 대한 예우 등이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추락하면서 불교계는 더더욱 위축되게 된다. 이처럼 불교계가 위축되면서 불사가 많지 않았고 이에 따라 탑파의 건립도 전대에 비하여 미미하였다.

반면 후기는 불교가 다소 예전의 지위와 예우를 서서히 회복하면서 전란으로 피폐한 사찰들에 대하여 많은 佛事가 진행된다. 그러나 탑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석탑의 건립은 그리 많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조선시대는 불교가 불상을 위주로 불교 신앙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수의 탑파가 건립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대에 이미 대부분 석탑이 건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석탑을 건립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석탑은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졌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새로운 석탑을 세우기 보다는 기존의 석탑을 보수하거나 새롭게 활용하여 가람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탑파의 건립이 전대에 비하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 후기는 불교가 성행하고 승려들에 대한 예우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석조부도가 건립되면서 석조미술의 주류가 석탑이 아닌 석조부도로 이행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찰은 선학들의 연구 성과가 절대적이었다. 향후 새로운 석탑들이 발견되고 석탑과 관련된 기록들이 새롭게 발굴된다면 조선시대 석탑의 양상과 미술사적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高麗時代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舍利具의 銅鏡 埋納의 樣相

李 松 蘭*

Ⅰ. 머리말
Ⅱ.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구의 출토 상황과 사리구의 특징
Ⅲ.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의 동경 매납
1. 고려 이전 사리구의 동경
2.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의 동경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산스크리트어인 사리라(sarīra)의 음역인 舍利는 본래 骨組, 體身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통상 釋迦佛의 유해인 부처님의 머리나 머리카락 등의 불사리를 의미한다.[1] 석가가 입멸 후 사리 분배가 이루어진 연후에 사리를 봉안한 10탑이 건립되었다. 초기의 경전의 하나인 팔리어로 된 『小乘涅槃經』의 내용과 인도에서의 발굴 성과들로 보았을 때

*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1) 나카무라 하지메(中村 元)・구노 타케시(久野 健) 監修, 『佛教美術事典』, 東京書籍, 東京, p.411.

인도에서 초기 10탑의 건립은 어느 정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인도의 사리신앙은 불교의 동점과 함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리신앙의 요체는 같지만 불탑의 건립과 사리구의 형태는 각국의 문화 취향과 공예 구조를 반영하는 점이다. 사리를 담는 사리용기는 당시 최고의 재질과 공예기술로서 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의 사리구에는 시대와 지역에 따른 특징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사리구의 특징을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의 사리구의 동경 매납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사리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리를 모시기 위한 그릇 이외에도 공양품으로 해석되는 여러 물건들이 매납되는 경우가 많다.[2] 2009년 새롭게 발견된 미륵사지 서탑에서는 사리를 모시는데 쓰였던 金銅舍利外壺, 金舍利外壺, 琉璃舍利內壺 이외에도 6점의 靑銅盒, 金舍利奉安記, 銀冠飾, 유리판, 유리구슬, 금제 소형판 등이 발견되었다. 이들 중 은제 소형판들은 시주의 성격을 가진 공양품으로 주목된 바도 있다.[3] 이와 같이 사리구에는 실제 사리구를 모시기 위한 기능을 가진 것 이외에도 공양품 성격의 여러 물품들이 매납되는데, 이 글에서 주목한 것은 동경이다.

동경은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외에도 불국사 3층 석탑에서도 완형 소문경 1점과 파편의 소문경 1점이 전하고 있다.[4] 이에 따라 고려시대 이전에도 탑에 동경이 매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불국사 3층 석탑의 경우는 처음 매납된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서 의미 파악에 여러 어려움이 많다.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의 사리구는 초기 매납된 모습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어 보다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월정사 팔각 구층탑에 매납된 사리구의 전체 매납 양상과 그 종류

---

2) 사리기와 함께 매납된 장신구 등을 탑이 무덤의 속성을 가진 것과 관련하여 공양품으로 본 의견은 다음의 글 참고. 김태식, 「부여 왕흥사지 昌王銘 사리구에 관한 고찰－舍利函 銘文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28호, 한국문화사학회, 2007, pp.62-63.

3) 의식의 참여자가 자신이 소유한 관식을 시주의 의미로 공양한 것으로 본 의견은 이한상, 「미륵사지 서탑 출토 은제관식에 대한 검토」, 『익산 미륵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 2009년 신라사학회・국민대 한국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09년 3월 21일, pp.57-58.
금제 소형판을 시주를 했던 화폐로 해석한 의견은 손환일, 「백제 미륵사지 석탑 사리봉안기와 金丁銘文의 서체」, 『익산 미륵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 pp.46-48.

4) 이난영, 『高麗鏡 硏究』, 도서출판 신유, 2003, pp.95-96.

를 고찰하려 한다. 이런 연후에 동경 4점의 유형과 매납 위치를 파악하여 사리구에 포함된 동경의 의미를 규명해 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오대의 항주 뇌봉탑에서 동경 매납의 예가 참고가 될 것이다. 동경 매납의 의미를 아는 것은 그간 연구가 미비하였던 고려시대 동경의 용도의 한 예를 아는 일 뿐 아니라 고려시대 사리구 구성의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Ⅱ.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사리구의 출토 상황과 사리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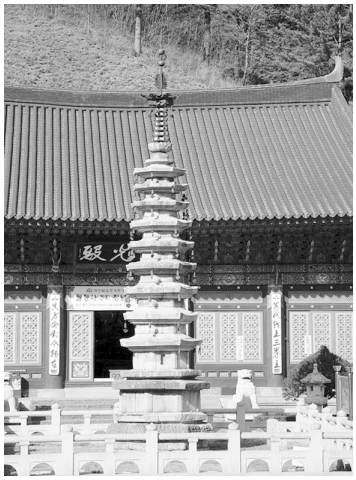
고려시대에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탑의 유형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5] 특히 고려 초기에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후삼국시대 지방 호족들이 주체가 되어 불사를 이룬 것과 관계가 깊다. 신라 양식의 탑, 백제 양식의 탑이 계승되기도 하고 새로이 다각다층의 탑, 사사자 석탑 등이 구축되기도 한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팔각의 이층 기단위에 구층 탑식이 있는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다각 다층탑이다(도 1). 이 탑은 팔각형의 평면을 가진 점에서 고구려의 팔각 탑에서 그 계보를 찾기도 한다(도 2).[6] 월정사 이외에도 평양 영명사 팔각오층석탑, 평양 인근 대동지역의 광법사 팔각오층석탑, 율리사지 팔각오층석탑, 영변 보현사 팔각십삼층 석탑이 있는데, 이들 탑들을 후고구려와 관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근대기에 조사된 상오리사지, 청암리사지, 그리고 1974년과 1987년에 북한에 의해 정릉사지와 토성리사지가 팔각탑지로 밝혀진 바가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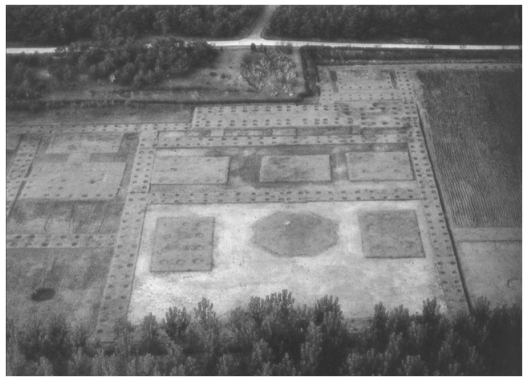
---

5) 정영호, 『한국의 석조 미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pp.88-131.
_____, 「고려 석탑의 양식상의 특성」, 『동양학』 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6, pp.261-270.

6) 陳政煥, 「고려시대의 탑파」, 『고려・조선시대의 탑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제25회 정기연구발표회, 2010년 4월 16일, pp.1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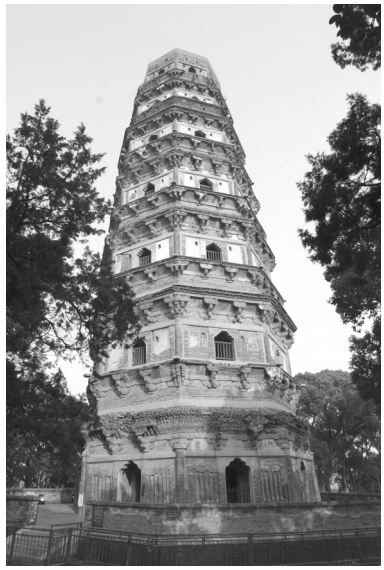


(도 1) 월정사 8각9층탑(고려)



(도 2) 정릉사지(평면도, 고구려)

한편으로는 요대 목조전축을 모방한 누각식 다층 전탑이나 석탑과 연결하여 보는 의견도 있다.[8] 당시 오대, 송, 요, 금 시대의 운암사 탑(959~961년, 도 3), 영은사 동탑(960년), 옥천사 철탑(1061년), 각산사 탑(1090년), 우국사 탑(1049년) 등 10세기 말부터 목조 건축을 재현한 누각식 다층 塼塔, 銅搭, 石塔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국제적인 흐름 속에 떨어지지 않는 의장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월정사 팔각구층탑의 계보의 문제는 월정사의 창건 세력과 조성 계획, 그리고 신앙적 배경의 조사와 함께 연구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 3) 운암사탑(호구탑)
(강소성 소주, 959~961년)

---

7) 이강근, 「고구려 八角形建物址에 대한 연구」, 『先史와 古代』 23, 한국고대학회. 2005, pp.5-35.

8) 요의 상하층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층단, 즉 암층형 평좌가 고려시대 각층 탑신 밑의 별석받침과 개념적,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강병희, 「고려 전기 사회 변동과 불탑 11~12세기 불탑의 북방적 영향」, 『美術史學』 23, 미술사학연구회, 2009, pp.277-319.

그러면 이제 월정사 팔각구층 탑에서 발견된 사라구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월정사는 한국전쟁 때에 모든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1970년 10월에 문화재관리국이 기우러진 탑을 해체하여 보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탑의 해체 과정 중에 탑신부에서 사리구가 발견되었다.

먼저 1층의 탑신에서는 원통형 사리공안에 청동제사리함이 겹보자기에 싸인 채 발견되었다. 그 안에서는 수정사리병, 전신사리경이 든 은합과 금동방형향갑, 향주머니, 향나무편들이 놓여 있었다(도 4). 이외에도 4점의 동경이 배치되어 있었다. 청동사리합의 아래와 동, 서, 북쪽에 동경이 한 점씩 발견되었다. 5층의 옥석에서는 역시 보자기에 싸인 은제여래입상이 남향을 향하여 놓여있었다.

(도 4) 청동합의 내부 모습(월정사 8각 9층탑, 고려)

이러한 다양한 출토유물들이 조합된 의미를 알기 위하여 먼저 개별적으로 각 유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리 14과가 들어있는 수정병과 같이 발견된 전신사리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도 5). 이 경전은 조탑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一切如來心祕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하 보협

(도 5) 전신사리경(월정사 8각 9층탑,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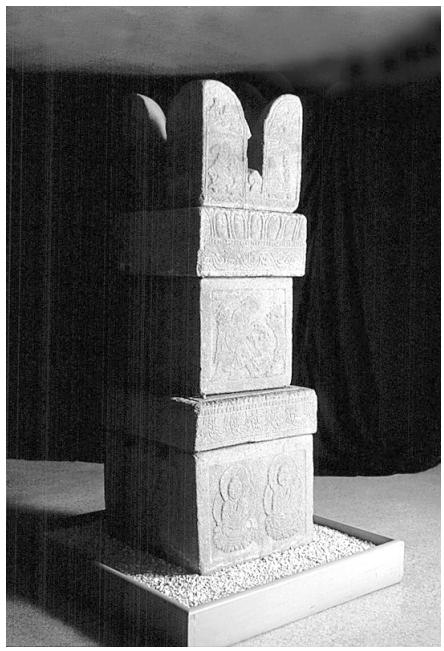
인경)'이 정식 명칭이다.

현재 월정사의 보협인경은 진공상태로 보관중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연구된 내용을 참고하면 이 경전과 다라니를 塔像에 안치하면 십방제불이 모든 때 따라 다니면서 가호를 해준다는 것이 이 경의 요체이다.[9)]

통일신라시대에 조탑의 근거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었다면 고려시대에는 보협인다라니경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보협인다라니경의 가장 빠른 예는 穆宗 10년(1007) 개성 摠持寺의 간행본이다. 불국사 삼층석탑의 100여장의 묵서지편에도 12장의 보협인다리니경이 포함되어 있었다.[10)]

보협인다리니경의 이해는 중국 吳越國 마지막 충의왕 錢弘淑의 보협인탑과 더불어 되어야 할 것이다. 전홍숙은 955년경 인도의 아소카왕이 부처 진신사리를 8만4천기의 탑에 나누어 봉안했다는 고사를 본떠 금·동·철 등의 재료로 한 소탑 8만4천기를 만들고 그 속에 각각 보협인경을 안치했다.[11)]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도 寶篋印陀羅尼經을 넣은 탑을 의미하는 석제보협인탑이 소장되어 있다. 천안시 북면 대평리 탑골 계곡의 절터에 무너져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 세운 것이다(도 6). 탑 윗면 중앙에는 『보협인다라니경』을 안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둥근 사리구멍이 확인된다.



(도 6) 석제보협인탑
(고려, 동국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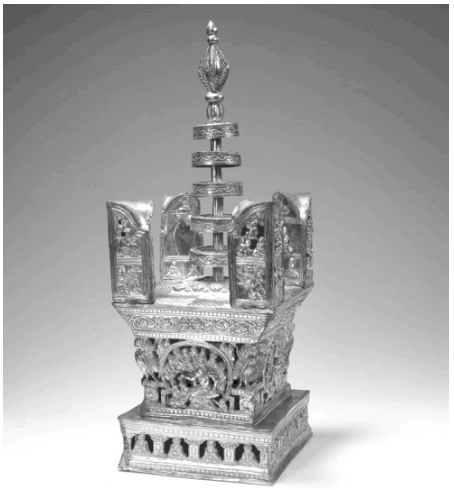
9) 보협인경은 당 772년에 인도에서 온 스님인 불공에 의해 한역되었다.
千惠鳳,「高麗初期 刊行의 一切如來心祕密全身舍利寶篋印陁羅尼經」,『中央大學ㅈ校圖書館學報』2, 1973, pp.1-47.

10) 묵서지편은 보협인다라니경,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1024년),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1038년) 布施名公衆僧小名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1)『天覆地載——雷峰塔天宮阿育王塔特展』, 中國文化藝術出版社, 2009.

다음으로는 사리외합의 역할을 하는 청동합과 그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리외함의 역할을 하는 청동제합의 기형을 보면, 위아래 면이 편평하고 납작한 형태에 뚜껑과 아래 부분의 맞물리는 부분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된 기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합의 기형은 앞서 살펴본 전홍숙의 보협인탑의 하나인 10세기 중엽에 조성된 중국 浙江省 金華 뇌봉탑 지궁에서 金銅阿育王塔과 동반 출토된 은합과 비교된다(도 7, 8).[12]

항주 뇌봉탑은 오월궁의 전홍숙이 부처님의 螺髻髮을 봉헌하기 위해 청건하였고 처음에는 皇妃塔으로 명명되었다고 한다.[13] 완공된 것은 북송 開寶 五年 즉 972년이다. 탑의 지궁에서는 금동아육왕탑 즉 보협인탑을 비롯한 1000여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앞서 살핀 동국대학의 석제보협인탑의 조형을 바로 이 금동아육왕탑에서 찾을 수 있다.



(도 7) 금동아육왕탑
(항주 뇌봉탑 지궁, 오대, 10세기)

(도 8) 은제합
(항주 뇌봉탑 지궁, 오대, 10세기)

12) 安眞鏞,『寶篋印塔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周炅美,「중국 浙江省 杭州 雷塔의 佛舍利莊嚴」,『불교미술사학』 4, 2006, pp.343-346.
13)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杭州雷j峰塔 五代地宮 發掘簡報」,『文物』 2002年 5期, pp.4-32.

항주 뇌봉탑에서 출토된 은제합 역시 뚜껑 부분과 접지면 부분이 둥글게 마무리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10세기대 합의 기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월정사지 팔각구층탑의 동제합의 경우 내부에 칠이 되어 있다.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의 오구라 수집품 중 전 남산출토품으로 전해지는 청동합의 경우에도 내부에 흑칠을 한다음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서 초화문을 장식한 된 예가 확인되어, 사리합의 내부에 칠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오구라 수집품의 청동합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 초로 비정된다(도 9).[14] 중국의 예와 오구라수집품의 청동합을 참고하면 월정사지 청동합은 10세기 늦어도 11세기 전반까지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9) 청동합(통일신라 말-고려초,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청동합에는 금동방형향갑, 향주머니, 향나무편들이 들어있었다. 특히 향주머니와 향편들이 사리구와 함께 공양품들의 성격으로 같이 매납된 예는 불국사 삼층석탑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1024년)>,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1038년)>에서 향낭으로 짐작되는 녹라수○복자, 홍라수대, 홍릉복자라는 항목이 발견된다.[15] 이 묵서편의 내용을 참고하면 향과 향을 넣은 주머니, 그리고 차 등이 공양품으로 탑에 매납되고 있다. 실제 불국사 삼층 석탑에서는 이 묵서편과 내용과 같이 여러 종류의 향과 향주머니편이 발견된 바 있다.

---

14)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2005, p.411.

15)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

'.... 矣臺錦刀冬音一銅鍍金□ / □刀冬音一无垢淨光陁羅尼(經)/九偏全金瓶一隨錦帋一_舍利八? / □金?一隨錦刀冬音一无垢淨光陁羅/尼經一卷隨錦帋一右之安藏爲白置 ..... 寶篋陁羅尼經龍? 一封丁香一(封) / □香一封靑木香一封生?香一封□□一封胡?一封銅含子一靑?服子一(寺) / (依)止大德輝雄納像露合子一金부□ 銀부一片乳香一封骨香一封丁香□(封) / 下梨勒一个臘香茶一封寺依止師 釋元納祿羅繡○服子一寺依止師 / ?納錦帋一骨香一封小石?十二寺依止大德正均納乳香一封寺依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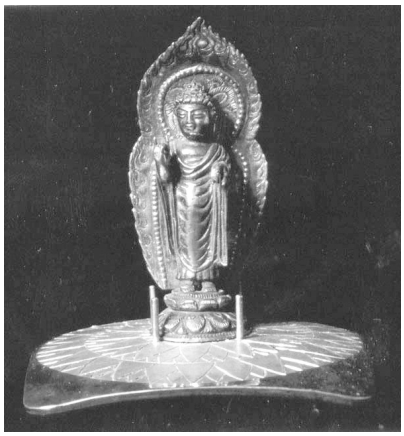
월정사의 향주머니는 윗부분에 둥근 매듭이 있어 안의 내용물을 잘 여밀 수 있는 구조이다(도 10). 표면에는 자수가 놓아져 있다. 금동향갑은 뚜껑 부분에는 유려한 선각으로 두 구의 신장상이 마주 보도록 배치되었다(도 11). 그리고 4면의 측면을 보면 두 면에는 보살입상 1구씩이 그리고 보상당초문이 각각 시문되었다. 배면에는 두 종류의 어자정으로 친 어자문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다.

(도 10) 향주머니
(월정사 팔각구층탑, 고려)

(도 11) 방형향갑(월정사 8각9층탑, 고려)

청동합의 저면과 주위에는 4점의 동경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5층 옥개석의 원형사리공에서는 보자기에 싸인 은제도금불입상 1구(높이 9.7cm)이 발견되었다. 앙련과 복련으로 이루어진 연화대좌위에 시무외인과 여원인의 통인을 한 불입상이 놓여있는 모습이다. 광배의 형태는 두광과 신광이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거신광이다(도 12). 중국 오대의 항주 뇌봉탑에서도 열반상이 매납되어 있었는데,



(도 12) 은제금도금불입상
(높이 9.7cm, 월정사8각9층탑, 고려)

우리나라의 경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기단부에서도 불입상이 발견된 바 있다. 월정사 은제도금은입상은 정면향의 자세, 다소 큰 얼굴, 광배의 화염보주문양 등으로 볼 때 중국 오대와 송대의 불상의 영향을 받은 고려 전기의 것으로 생각된다.[16]

이제까지 월정사 팔각구층탑의 1층과 5층에서 출토된 사리기 일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간 월정사의 연혁과 관계된 서지학적 연구로 13세기로 보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월정사를 水多寺 장로 有緣이 13세기 중반 무렵에 改稱한 것을 주목한 것이다. 즉 유선이 월정사를 중건하면서 팔각구층탑이 지어지고 全身舍利經이 조성된 것으로 본 것이다. 월정사 팔각구층탑의 사리구를 고려 후기인 13세기로 보는 견해는 은제합에 들어있는 全身舍利經으로 불리는 보협인다라니경의 제작 연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17]

그러나 청동제합이나 불상의 연대로 보면 빠르면 10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하여도 좋을 듯 하다. 월정사의 사리기는 사리내함을 수정병으로 하는 점, 공양구로 향과 향갑이 들어가는 점, 그리고 보협인경이 사상적 배경으로 자리하는 점들이 특징으로 파악된다. 월정사의 팔각구층탑에서는 4점의 불상이 사리외함을 둘러쌓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탑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양상이다.

Ⅲ.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의 동경 매납

1. 고려 이전 사리구의 동경

월정사 팔각구층탑의 동경 매납의 양상 이전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되는 되는 예는 백제 왕흥사 몰탑지 출토 사

16) 崔聖銀, 「唐末五代 佛教彫刻의 傾向」, 『美術史學』 Ⅳ, 미술사학연구회, 1992, pp.161-191.
17) 송일기, 「五臺山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出土 『全身舍利經』의 考察」,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2, pp.311-326.

리구이다. 왕흥사는 위덕왕((威德王, 554~598)이 577년에 세운 사찰이다.[18] 사리장치는 목탑 기단토 윗면으로부터 약 50cm 아래에서 화강암으로 된 장방형의 석재에 금제사리병－은제사리호－청동제 사리합이 중첩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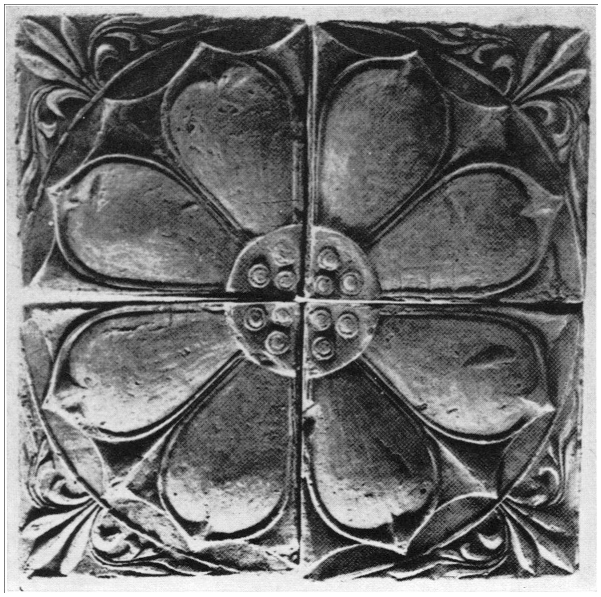
(도 13) 석제 사리함의 표면 복원

왕흥사의 경우에는 실제 동경이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석제 사리함의 녹정형 뚜껑 사리함의 문양이 동경과 관련되어 주목된다. 붉은 진사를 이용하여 원문으로 이중의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화문을 넣고 내부에 이중의 테두리를 구획한 다음 그 안에 반원형의 무늬가 반복하여 시문하였다(도 13).[19] 이 문양의 사면에는 남북조시대의 유행한 팔메트가 장식되어 있다. 중국 남북조시대의 흐름과 같이 백제 사비시대에는 팔메트와 연화문이 조합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상기하면 왕흥사 사리함의 화문으로 보이는 문양의 출처가 궁금해진다(도 14).

---

18) 청동합에 '丁酉年二月 十五日百濟 昌王爲亡王子立刹本舍利二枚葬時 神化爲三' 즉, '정유년(577년) 2월 15일 백제 창왕(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우고 본래 사리 2매를 묻었을 때 신의 조화로 3매가 되었다.'는 銘文이 발견되어 연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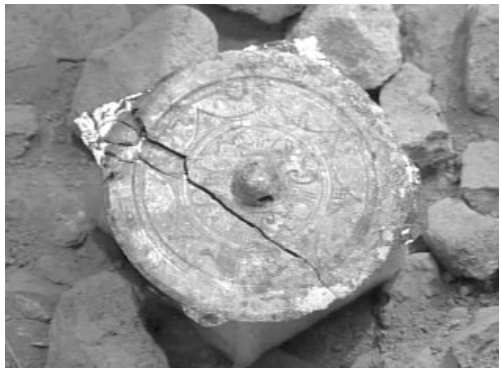
19) 孔祥星・劉一曼, 안경숙 역, 『中國古代銅鏡』, 주류성, 2003, pp.142-147.



(도 14) 연화문과 팔메트(등현, 남조, 중국)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전한시대부터 출현한 연호문경의 문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연호문경은 정백동 6호묘, 중화 진파리, 석암리 연호문경을 필두로 경주 조양동 38호 목곽분, 전 대구 지산동에서 연호문일광경이, 제주도 산지항에서 방제연호문경이 다수 출토된 바가 있다.[20]

연호문경은 마치 활을 연결하여 놓은 것처럼 반원이 연결된 문양대와 그 안쪽과 바깥쪽에 원형의 띠가 둘러져 있는 동경을 말한다. 이러한 문양의 구성은 앞서 살펴본 바가 있는 연호문경은 삼국시대에도 이어지는데 2006년 5세기초기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고분에서 金銅冠, 금동신발과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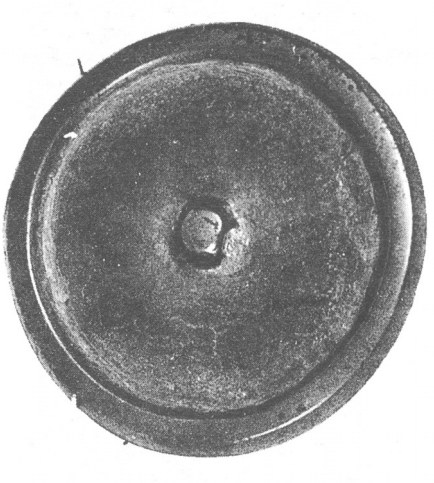


(도 15) '長宜子孫'명 연호문경(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고분, 백제, 5세기)

20) 이난영, 앞의 책, pp.81-85.

불어 10.5㎝ 크기의 연호문경이 발견된 바 있다. 뉴 사이에서는 자손들이 길이 번창하라는 의미인 '長宜子孫'으로 보이는 명문이 확인되었다(도 15).

불국사 삼층석탑에서도 소문경이 출토된 바가 있다(도 16, 도 17).[21] 불국사의 경우에서는 완형의 소형 소문경과 경의 사분의 일 정도 크기의 파편으로 남은 소문경 2점이 매납되어 있었다. 소형 소문경은 꼭지가 편평하고 테두리가 두터우면서 편평하고 특징이 있다. 파편으로 나온 소문경은 그 크기로 볼 때 복원할 경우 상당히 큰 동경으로 파악된다. 탑에 매납을 할 때 완형을 넣지 않고 파편으로 넣은 의미는 앞으로 연구해야할 과제로 생각된다.



(도 16) 소문경(지름, 7.0cm, 불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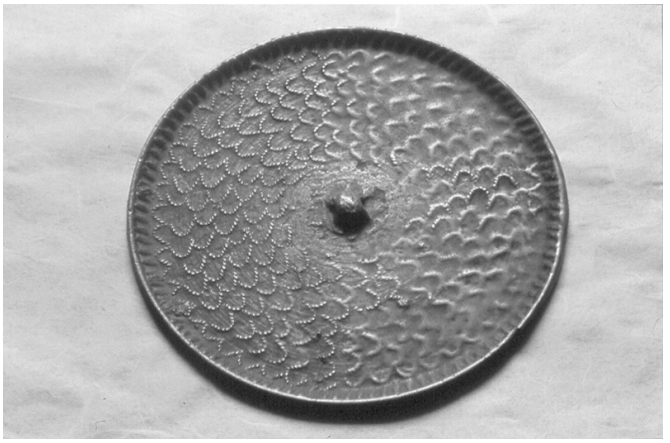
(도 17) 소문경 파편
(길이 8.0cm, 불국사 삼층석탑)

2.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의 동경

이제 동경이 사리구와 함께 매납되는 의미를 월정사 팔각구층탑에서 출토된 동경을 통해 찾아 보기로 한다. 사리외함 주변에서 발견된 波文鏡, 無文鏡, 방고경의 일종인 사

21) 이난영, 위의 책, pp.95-96.

수문경, 雙龍文鏡의 정확한 배치는 알 수 없으나 무문경의 경우에는 바닥에 그리고 파문경과 사수문경, 쌍룡문경이 합의 동, 서, 북쪽을 에워싼 것으로 생각된다(도 18-20). 이중 먼저 파문경을 보면 테두리가 좁고 높게 올라가 있고 전면에 파도문이 빼곡하게 시문되어 있다. 간결한 구성으로 현재 이와 같은 파도문 경과 유사한 예는 없다(도 18).



(도 18) 파문경(월정사 팔각구층탑, 고려)

사수경의 경우에는 청개경의 일종으로 고려시대에 방제된 수대 방고경으로 파악된다. 테두리에는 시계방향으로 "빛이 밝은 달에 이르니 그 품성이 더욱 심오해지고, 맑은 하늘은 물을 거울삼아 과거를 비추어 의문을 밝게하니 마침내 옛 것을 영원히 굳히니 이 심령이 빛난다. 光流素月, 質稟玄精, 澄空鑒水, 照迴疑淸, 終古永固, 瑩此心靈"이라는 명문이 있다. 이는 수대에 유행한 수금문 동경에서 의례히 쓰이는 4언 절구이다. 현재 월정사의 사수문경과 비교되는 예로는 북경 고궁박물관의 오수문경이 있다(도 19). 외구에 두 줄의 돌기된 원문이 시문되고 그 안에 명문이 시문된 것이나. 테두리에 거치문이 배치된 것 등 문양의 구조가 비교된다. 다만 대만 고궁 박물원의 경우에는 포도당초문과 서수가 5마리가 배치되어 있어 당대까지 비정되는 기형이다(도 20).[22]

22) 郭玉海,『故宮藏鏡』, 紫禁城出版社, 北京, 1996, p.82.
何林 主編,『故宮收藏 銅鏡』, 紫禁城出版社, 北京, 2007,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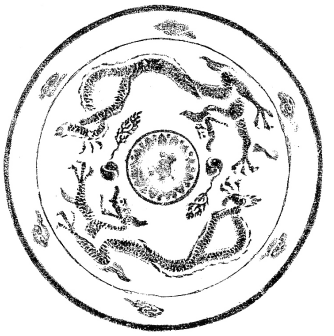
(도 19) 사수문경
(월정사 팔각구층탑, 고려)

(도 20) 光流素月銘 五瑞獸鏡
(수당, 북경 고궁박물원)

다음 쌍룡문경은 꼭지를 중앙에 두고 두 마리의 용이 전체적으로 원의 모양으로 그리면서 마주 보고 있는 구성이다. 그 주위에 연주문이 시문되어 있고 다시 테두리 문양으로 당초문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요대에 유행한 쌍룡문의 구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도 21). 고려의 동경 중에 특히 쌍룡문이 많다. 이 동경은 용수전각문경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동경의 두께가 두껍고 큰 편이다.

(도 21) 쌍룡문경(월정사 팔각구층탑,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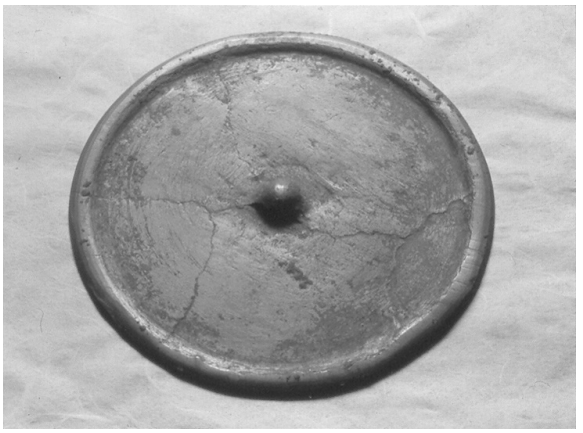
요경 계열인 원효사 출토 고려경은 화염보주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도 비정해 볼 수 있다(도 22).



(도 22) 쌍룡문경
(원효사, 고려)

마지막으로 바닥에 놓인 소문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문경은 문양이 없고 형식상의 변화가 적어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고려시대의 소문경은 테두리가 넓은 것과 좁은 것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테두리가 넓은 소문경이 더 많은데, 金鏡 계통의 소문경이 대개 테두리가 넓다.[23] 월정사 팔각구층탑에서 출토된 소문경은 테두리가 좁은 형식으로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예와 유사하다. 그리고 탑에서 출토된 예는 아니지만 경주 황룡사지에서도 소문경이 발견된 바가 있다.

소문경은 고려시대에 실용 거울로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청주 용암지구 금천동 토광묘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동경에서는 목제 빗의 자국이 남아있어 소문경이 화장구로 사용되었던 용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24]



(도 23) 소문경(월정사 팔각구층탑, 고려)

(도 24) 소문경(덕 4715(2-1),
지름 15.5cm, 개성 고분)

23) 고려시대 금경에 대해서는 박진경, 『금계 고려경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참고.
24) 이난영, 앞의 책, pp.299-300.

월정사 팔각구층탑에서는 사리외함을 둘러쌓고 있는 4점의 거울 중 가장 평범한 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문경이 가장 중앙에 위치한 셈이 된다. 이러한 소문경의 위치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것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마찬가지로 보협인다라니가 출토된 절강성 항주 뇌봉탑의 소문경의 출토 위치이다. 뇌봉탑에서 소문경은 녹정형 사리기안에서 보협인탑의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월정사 팔각구층의 예와 같이 결국 사리기의 아래 중앙에 위치하여 있다. 이를 참고하면 소문경은 방위에서 중앙을 담당한 셈이다. 뇌봉탑에서는 이 소문경 이외에도 日光鏡, 포도서수문경, '도성동방'문 등 10점의 거울이 출토되었다.[25] 뇌봉탑에서는 소문경 이외의 다른 동경들은 일정한 방위에 따라 배열되지는 않았다.

(도 25) 소문경
(절강성 항주 뇌봉탑, 오대, 10세기)

동경이 방위에 따라 배열된 것을 잘 알 수 있는 예는 浙江省 台州市 黃巖區 靈石寺塔의 예이다. 영암사탑은 1978년 해체 수리되면서 1층과 4층 사이의 각층에서 불상과 공양품이 발견되었다. 영암사는 東晋 隆安 二年(403년) 創建되었고 탑은 건덕4년(965년)에 착공되었다. 대웅보전의 좌우 동서에 쌍탑이 조탑되었는데 동탑은 청시대에 파손되어 현재는 서탑만이 남아있다.

탑 내의 유물이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4층으로 350립이 담긴 은합을 담은 동합, 청자향로, 진한시대부터 북송시대까지의 동전이 철제함이 담겨져 있다. 이외에도 철제아육왕탑, 동제아육왕탑, 목패, 佛說豫修十王生七經 5권, 동경 15매가 발견되었다. 이들 동경 중 線刻鏡이라고 불리우는 <釋迦五尊等鏡像>, <東方天王鏡像>, <南方天王鏡像>, <西方天王鏡像>, <北方天王鏡像>이 주목된다. 석가모니와 사천왕의 구성인데 중국 내에서 한 곳에서 선각경이 이렇게 다수가 발견된 것은 영석사의 예가 유일하다.

---

25) 周炅美,「중국 浙江省 杭州 雷峰塔의 佛舍利莊嚴」,『불교미술사학』4, 2006, pp.343-346.

(도 26) 남방천왕경상, 동방천왕경상(浙江省 台州市 黃巖區 靈石寺塔, 오대-북송, 10세기)

(도 27) 남방천왕경상(浙江省 台州市 黃巖區 靈石寺塔, 북송, 오대-북송, 10세기)

〈표 1〉 浙江省 台州市 黃巖區 靈石寺塔 출토 동경의 명문

존 명	내 용	
釋迦五尊等鏡像	거울면	僧保誠奉爲 息三友水充供養/咸平元年十一月十四日
	뒤	僧志隆爲
東方天王鏡像	거울면	乾德四年丙寅九月十五日勾當僧歸進慕緣捨入塔永允供養靈石寺記
	뒤	行者奉詢
南方天王鏡像	거울면	乾德四年丙寅玖月十五日勾當僧歸進慕緣捨入塔永允供養咸平元年十一日十四日重建此塔僧紹光寺記靈石寺
	뒤	南方毗樓勒叉天王
西方天王鏡像	거울면	乾德四年丙寅九月十五日勾當僧歸進慕緣捨入塔永允供養靈石寺記
	뒤	僧志隆書
北方天王鏡像	거울면	僧歸進慕緣捨入塔永充供養乾德4年九月靈石寺
	뒤	北方毗沙文天王

석가모니오존경상은 연화좌위에 석가가 결가부좌를 하고 있고 그 주위에 아난과 가섭 그리고 문수와 보현이 자리를 잡고 있다. 전방에는 두 구의 천왕이 위치하고 있다. 천왕상들은 경전에 적힌 것과 같은 사천왕의 지물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동, 서, 남, 북을 지키는 사천왕들로 판단된다(도 26, 27) 이와 같이 동경에 불상과 천왕상이 새겨진 선각경이 탑에 매납되는 것은 오월국의 영역에서 나오는 특징으로 알려진다. 또한 靈石寺塔에서 동경이 일정한 방위개념을 갖추고 출토되는 점은 고려 월정사 팔각구층탑에서 동경이 사리외함의 중앙과 동, 서, 북쪽을 에워 쌓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는 앞으로 더 연구해보아야 하겠지만 비추는 용도만이 아닌 동경의 특별한 용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동경에 무덤의 부장품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Ⅳ. 맺음말

중국에서는 중요한 불사 활동이 있을 때, 사찰에 동경을 사액한 예가 많다. 엔닌의 『入唐求法巡禮器』에는 開成 5년(840) 5月 17日 천자가 내린 물건 중에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동경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함통 4년(839년) 嬉宗이 法門寺에 불사리를 봉안할 때 동경 2매를 시주한 기록이 전한다.[26] 이는 동경이 불사에 시주 목적으로 사용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탑에 동경이 납입된 것은 불사에 동경이 시주되었듯이 부처님의 사리구와 함께 매납되는 공양품의 성격으로 파악된다.

이제 까지 살펴본 월정사 팔각구층탑의 사리외함 주변에서 발견된 동경 4매도 공양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이전에도 동경을 탑에 매납하는 예를 불국사 삼층 석탑에서 찾을 수 있기는 하나 월정사 팔각구층탑의 동경의 매납 양상은 중국 오대 오월

26) 치등방, 서윤경역, 「거울과 환영－당대 동경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24, 2007, pp.39-61.

국의 탑에서 발견되는 동경과 비교되는 점이 많다. 특히 절강성 항주 뇌봉탑의 경우 월정사 팔각구층탑과 같이 소문경이 사리외합의 중앙에 위치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월정사 팔각구층탑에서 발견된 『보협인다리니경』이 吳越國의 왕 錢弘淑의 보협인탑과 더불어 이해되는 점이 참고된다.

시론적으로 쓰는 글이라 허점이 많다. 중국 오월국과 우리나라 탑에 매납되는 동경의 유형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도 과제도 남는다. 부족한 점은 추후에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맺는다.

알 림

〈박물관 기요〉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투고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1. 투고원고는 역사학 일반,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학술지나 논문집에 실린 바 없는 고유한 연구물이어야 합니다.

2. 투고원고의 매수 제한은 없으며, 편집의 편의를 위하여 되도록 디스켓을 동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투고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박물관 정기 연구 발표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량이 많을 경우 편집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4. 그 밖에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 8005-2389~2390
FAX : 031) 8005-2391

〈박물관기요〉 25

2010년 5월 24일 인쇄
2010년 5월 31일 발행

발행 단국대학교 출판부
등록 1968年 2月 27日 NO. 3-95
편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경기도 수지구 용인시 죽전동 126번지
(031) 8005-2389~2390, FAX : (031) 8005-2391
제작 新 陽 社 (02) 2275-0834, 4585